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408호

Tuesday, October 21 2025 A

한·미, ‘차관세 25→15% 인하’ 경주 APEC서 합의할 듯

김정관(사진·가운데)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의 3500억 달러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에서 우리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어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협의가 준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타겠다고 말했다. 이날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을 일단 제외하고, 총론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 금액을 정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의 남은 쟁점에 대해 “어차피 한·미 정상이 만나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윤지원 기자

국민 절반 이상 “통일 불필요” ‘통일 필요’ 응답 첫 역전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필요성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통일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이 20일 발표한 ‘KINU 통일인식조사 2025’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지난해보다 3.8%포인트 감소하며 처음으로 과반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통일 불필요’ 응답이 ‘통일 필요’ 응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연구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확산, 남북관계 단절의 장기화, 국내 정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통일 인식이 일시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동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특히 모든 세대에서 통일 필요성 인식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63.2%로, 관련 문항이 포함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통일보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응답도 47%로, 2022년 35.2%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현재의 분단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25.3%에 그쳤다.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이 일상화됐지만 즉각적인 군사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상태도 견딜 만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68.1%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진행됐으며, 통일연구원은 2014년부터 통일 인식, 대북정책, 주변국 인식 등을 추적 조사해 오고 있다.

정재홍 기자

이 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렵다”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해



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자주국방’ 기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 발전의 또

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

다른 의미로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최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이 민간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특히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하려면 ‘우리가 잘 쓰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실제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생태계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강조했다. “방위산업이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면 당당하게 경쟁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

다”며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은 이미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주국방과 국산 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강화, 그리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한 국방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홍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플랜지몰리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스마트보험이 무료 세미나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가
직접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지금 바로
스마트보험 무료 세미나 신청하기**

SCAN ME

메디케어 세미나

10/1, 10/8, 10/15, 10/22,
10/29, 11/5, 11/12, 11/19

오바마케어 세미나

12/3, 12/10, 12/17

스마트보험 사무실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7535 Little River TPKE #204
Annandale, VA 22003

세미나 내용
메디케어/오바마케어 기본 내용 및
나에게 맞는 플랜 선택하기

참석 방법
전화/문자/이메일/QR 코드 등록을 통해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전화예약 703-639-0882 문자예약 703-745-5002 이메일 예약 agentsupport@solomonus.com

이화여대 50회, 북미주 총회 DC서 열려

본교 총장 및 음대 교수진 참석
케네디센터서 기념 공연 마련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오는 10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나흘동안 워싱턴DC 인근 하얏트 리젠시 딜레스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총동창회와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 이화 동창회 회장단 및 회원들이 참석하며, 본교 이향숙 총장과 음악대학 학장 및 교수진도 함께할 예정이다.

1976년 워싱턴DC에서 처음 열린 이래 올해로 50회를 맞이하는 이번 총회는, 워싱턴에서는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자리로,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Ewha in(人) DC: Go Together, Blossom Forever!”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이화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끝없이 꽃피운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번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10월 25



일(토) 오후 2시, 워싱턴DC 소재 케네디센터 테라스 극장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연주회 “Giving Thanks” 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작곡가 안현정의 ‘Ewha Rhapsody’를 시작으로 첼로·클라리넷·가야금·대금 등 동서양 악기의 어우러짐을 보여주며, 국악과 무용이 결합된 ‘Echoes of Arirang’, 그리고 12대 첼로 앙상블 Ewha Celli의 웅장한 무대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행사를 비롯한 월드투어 전 과정에서 모금된 기금은 워싱

턴DC 어린이국립병원(Children’s National Hospital)에 찾아가는 음악회와 함께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최미나 총회 준비위원장은 “이화의 음악이 나눔으로 이어지고, 100년 전 미국 선교사의 헌신이 오늘의 이화정신으로 되살아나는 자리”라며 “케네디센터에서 울려 퍼질 희망의 선율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워싱턴 DC 지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동문 모임을 넘어, 이화의 전통과 미래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축제”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 기간 중 25일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공연(Terrace Theater)과 Children’s National Hospital 공연은 한인 커뮤니티와 워싱턴 지역 전체에 무료로 공개한다.

총회 행사 등록: ewhadcchapter.org,

문의 admin@ewhadcchapter.org

홍알벗 기자

6M계란 살모넬라균 비상 ‘주의요망’

FDA, 600만개 리콜
심하면 사망 초래도

미연방식품의약품(FDA)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 높은 ‘6M’ 계란 600만개 이상에 대해 1등급 리콜을 19일 발표했다.

FDA는 ‘블랙 쉽 에그’(black Sheep Egg Co.)사에서 사육한 A등급 대형 계란에 대한 처음 리콜을 지난 9월에 발표했으며, 이날 14일 내용을 업데이트해 이날 전국에 알렸다.

1등급 리콜은 계란 섭취가 심각한 건강 문제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때 시행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FDA가 아칸소주 윌렛리지에 있는 계란회사의 가공 시설을

검사한 결과 7가지 살모넬라균의 환경 샘플 40개가 발견된 후 이뤄진 것이다.

12개와 18개들이 상자에 담겨 판매된 UPC 코드 860010568507과 860010568538이 리콜 대상인 데, 유효 기한은 10월31일까지로 되어 있다.

살모넬라균 감염은 발열, 설사, 메스꺼움, 구토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 면역 저하 환자, 노인과 어린이 등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FDA에 따르면, 해당 계란은 아칸소주와 미주리주에 있는 회사들로 유통되었지만, 재포장되어 다른 라벨을 사용해 전국으로 판매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리콜과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FDA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재향군인 ‘무료 치과 진료’

스마일치과, 11월7일 하루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스마일치과’에서는 11월7일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제공한다.

무료 치과 서비스에는 충치 치료, 발치, 치과 세척 등이 포함된다.

재향군인의 날은 11월11일이지만, 스마일치과는 이날이 공휴일인 관계로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일치과 측은 “이번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이 것은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우리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료 치과 진료는 애난데일 스마일치과, 텔시티 스마일치과, 레스턴 패밀리 스마일치과에서 동시에 제공된다. 문의는 전화(703-256-5870)으로 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임정 사료,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83세 재미 한인 흥영자 씨는 미국 물린버그대에서 동아시아·소비에트 정치학 및 역사 담당 교수로 활동하다 2023년 별세한 고 이순원 교수의 부인이다.

남편이 소장하던 임시정부 발간 최초이자 유일한 역사서 ‘한일관계사료집’을 지난해 5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기증했다.

총 4권으로 된 사료집은 1920년대 임시정부가 편찬한 역사서다. 책은 삼국 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일

본의 침략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했다.

흥 씨는 언론인 출신 조 목사를 통해 사료집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조 건 없이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치학 연구와 강의에 평생 바쳤으며, 리하이밸리 한인회를 조직해 초대회장을 지내며 한인 이민자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했다.

주말 워싱턴 곳곳서 화재…이재민 13명 발생

페어팩스카운티 ‘산불’
PG.로럴지역 ‘두 주택’

주말 사이 워싱턴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나 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9일 오후 4시경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페어팩스 소방당국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에 나선 끝에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로부터 두 시간 후인 오후 5시47분 경에는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 로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성인 3명과 어린이 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페어팩스 산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사진 소방국 제공)

프린스 조지 소방국은 15500 스트라우건 드라이브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가 1층에서 2층으로 번졌는데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12시 5분경에는 프린스 조지 카운티 랜도버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8명의 이재민을 냈다.

소방국은 2100 켄트 빌리지 드라이브의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1층 주택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가을철은 습기가 적어지고 건조해진 날씨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피로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렌트 전문
-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헷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칭, 편리한 치료가환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1/10 ~ 11/14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메디케어 큰 변화 플랜 선택 더 중요

혜택 줄고 본인부담 늘어
병원비·약값 등 확인 필요

내년 메디케어 플랜이 큰 폭으로 바뀐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오픈 등록 시즌은 ‘역대급’ 혼란 속에 진행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 혜택 축소, 의료진 제한, 약값 상승 등 변화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신중한 비교를 당부했다.

메디케어 등록은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가입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B)와 민간보험사의 어드밴티지(파트C) 전환 ▶처방약 플랜(파트D) 신규 가입 또는 변경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 전환이 가능하다. 공식 사이트(Medicare.gov)의 ‘플랜 파인더(Plan Finder)’에서 지역별 모든 플랜을 비교할 수 있다.

올해는 연방정부 섯다운이 겹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섯다운에도 필수 기능으로 분류된 보험 등록과 의료비 보장은 계속된다. 월스트리트저널과 건강보험 전문가들이 짚은 변화와 유의

사항을 정리했다.

◆병원비·약값 인상

다수의 보험사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책으로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 일부 플랜은 하루 입원비 부담을 올해 395달러에서 내년 550달러로 높였다. 무보험료 플랜이 월 48달러의 유료 플랜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시니어들은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약관 변경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신규 가입자는 혜택 내용과 보장 범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의사·병원 네트워크 축소

내년에는 약 120만 명의 가입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플랜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PPO를 줄이고 네트워크를 제한하는 HMO 플랜을 확대하는 추세다. HMO의 경우 네트워크 밖 병원 이용 시 보험 커버가 안될 수 있다. 아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네트워크에서 이탈하는 병원들도 많다. 자신이 이용하는 의사와 병원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유럽 여행 한인 남성 칼에 찔려 사망

다니엘 김…중국계 친구는 부상
15일 포르투갈 유명 휴양지서
시비 건 현지인들에 폭행 당해

한인 남성이 친구와 유럽 여행길에 올랐다가 시비를 걸어온 현지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페인 최대 영자매체 유로워커리는 지난 18일 35세 미국인 관광객인 다니엘 김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20마

일 떨어진 해변 도시 카스카이스에서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경 현지인과 언쟁 끝에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현지 디지털 매체인 카스카이스24호라스는 사망자는 다니엘 동민 김이며 부상자는 34세 중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시 쑤쓰이라고 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씨와 친구가 클럽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 가던중 세명의 남성과 시비가 붙었

으며 한 남성이 친구의 모자를 건드린 것이 언쟁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폭행으로 김씨는 얼굴, 팔, 등에 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친구도 얼굴, 팔 등에 자상을 입고 리스본의 산타마리아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포르투갈 사법경찰은 지역 술집에서 일했던 23세 남성 용의자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2명은 폭행 가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집회가 18일 전국 2700여 곳에서 일제히 열렸다. 700여 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군 병력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규모 추방, 선거 공정성 훼손 등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LA 다운타운에도 20여 만명이 운집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합성을 높였다. 김상진 기자

CVS, 라이트에이드 매장 인수

대형 약국 체인 CVS가 지난 5월 과산보호 신청을 한 라이트에이드(Rite Aid)의 캘리포니아 내 매장 186곳 등이 포함된 자산 인수에 나선다. 하지만 인수 대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 매체 패치(Patch)는 16일 CVS가 라이트에이드의 15개 주 626개 매장과 해당 매장의 처방전 기록을 함께 매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인수로 CVS는 전국적으로 약 900만 명의 처방전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라이트에이드의 처방전 기록은 월그린(Walgreens), 앨버트슨(Albertsons), 크로거(Kroger) 등 12곳 이상의 약국·유통업체에 분산 매각됐지만, CVS가 최대 인수자로 알려졌다. 환자 권의 옹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라이트에이드가 매장을 정리하면서 일부 환자들이 먼 거리의 대형 약국을 찾아야 했지만, 이번 인수로 그런 불편이 크게 줄게 됐다”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

LA 노숙자 단체들 수입 8년 새 1만 배 폭증1만 배 폭증

LA카운티 지역 노숙자 지원 단체들의 총수입이 약 8년 만에 무려 1만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거리의 노숙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노숙자 지원 단체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매체 웨스트사이드 커렌트(Westside Current)는 지난 16일 국세청(IRS) 자료를 인용해 LA카운티 지

역에서 세금 등으로 운영되는 주요 30개 노숙자 지원 단체들의 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30개 단체의 총수입은 2023~2024 회계연도 기준 1억 217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2015년에는 총수입이 1만 2000달러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단체 1곳당 평균 연수입이 400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8년 만에 1만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LA카운티의 노숙

인구는 4만 4359명에서 7만 5518명으로 약 70% 증가했다.

웨스트사이드 커렌트는 “LA시와 카운티 지도자들이 시민들에게 ‘노숙자 문제 해결’이라는 환상을 팔았다”며 “납세자들은 막대한 세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요 노숙자 지원 단체들의 재정 규모는 지난 8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송윤서 기자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이사장 김진아)

제 41회 MD 건강 검진의 날

2025년 10월 25일 (토)

오전 9시 - 오후 12시

Global Mission Church (워싱턴지구총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접종 및 혈액 검사는 사전 등록 필수! 참가자 70명에게 \$20 상품권 선물

- 독감, Covid-19, 대상 포진 등 예방 접종
*대부분의 건강보험을 사용하여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자인 경우 독감은 \$38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무료 혈액 검사: 콜레스테롤, 혈당, B형, C형 간염 검사
- 유료 혈액 검사: A1C 당뇨, 신장 및 간 기능 종합 대사, 갑상선, 비타민 D *항목별 \$40-\$50 본인 부담

- 전문의와의 1대1 진료 및 상담 (무료):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척추신경, 류마티스 내과, 족부의학, 안과, 영상의학과, 한방, 초음파 검사
- 메디케어 파트 D (약보험) 점검 및 2026년 플랜 변경
*사전 예약 필수. 메디케어 카드, 운전 면허증, 복용 중인 약병 지참
- 지역 사회 건강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

등록 문의 | 건강 증진 프로그램 매니저 (미숙 헤어) T. 703-354-6345 / mhare@kcscgw.org



Scan me
등록하기



다인종 축제로 성장... 현금 거래·안전 관리는 숙제

LA 대표 한마당 잔치 자리매김
나흘 동안 40여회 공연 진행

LA한인축제가 명실상부 LA를 대표하는 연례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LA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과 한류 덕에 다인종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한인축제는 한인사회 문화 역량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무대였다. LA한인축제재단은 LA시장실과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실, 레크리에이션&공원국, 문화예술국 등의 협조를 끌어냈고, '다문화 공존의 한류 축제'로 호평받았다. 축제에서는 한류 스타 공연, 다문화 공연, 각종 경연대회 등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다만 현금 거래 위주 판매, 안전 관리 미흡, 편의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재단 측은 자체 시큐리티 요원과 LA 경찰국(LAPD) 순찰경관의 협조로 안전 관리를 했지만 사람이 물린 혼잡 지역에서는 불안감을 느낀 방문객도 적지 않았다. 한 방문객은 "어린이와 반려견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방문객들에 의해 밀려서 넘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다"며 "사람이 많은 통로마다 안전요원을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행사 장소 주변에는 음식 포장재와 음식물 등의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유발했다. 인근 주민 강유나(27)씨는 "길가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제52회 LA 한인축제 3일째인 지난 18일 메인 무대에서 K-팝 걸그룹 '브브걸'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김상진 기자

사람이 많았다"며 "더 많은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축제 현장에는 약 300개의 홍보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

을 선보였다. 그러나 일부 방문객은 "여전히 현금 결제만 받는 곳이 많아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케빈 김씨는 "LA 한복판에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었지

만, 한인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았다. 한국 특산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올해는 연방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이민 단속이 많았다. 특히 지난달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현장에서 비자 문제로 한국인 323명이 체포된 이후, 한인축제에 무비자(ESTA)나 단기 상용비자(B1)로 입국해 영리활동을 하던 관행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한인축제재단(회장 알렉스 차)은 농수산 엑스포 부스 판매를 담당할 현지 도우미를 채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한국 상인과 도우미가 뒤섞여 현금 거래를 하는 모습이 다수 목격됐다. 사전 교육과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제 기자

LA한인타운에 싱크홀 발생

LA 한인타운 도심 도로가 한밤중 갑자기 내려앉았다. 17일 새벽 2시30분쯤, 세인트앤드루스 플레이스와 4가 교차로 도로가 함몰되며 싱크홀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지하의 노후 상수관이 파열돼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차량 한 대가 파손되고 도로는 진흙과 흙탕물로 뒤덮였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시는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LA 전역의 노후 수도 인프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LA수도 전력국(LADWP)에 따르면, LA 시내



17일 새벽 LA 한인타운 세인트앤드루스 플레이스와 4가 인근 도로가 함몰돼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BC7 캡처]

상수관의 30% 이상이 80년이 넘는 노후 배관으로 지진이나 수압 변화, 토양 침식에 취약하다. 지난 7일 베니스 지역에서도 상수관 파열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30여 가구가 단수 피해를 봤다. 전문가들은 "노후된 지하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 물이 토양과 지반을 약화시켜 도로 붕괴로 이어지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시에서는 매년 약 300건의 상수관 누수가 보고되고 있어 향후 싱크홀 발생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예방보다 복구 중심의 대응 구조다. LA시는 상수관 교체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교체 속도는 전체 관망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교체가 늦어질수록 피해 복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강조했다. 송영채 기자

한국인, 인신매매 등으로 체포

라스베이거스 경찰·FBI 공조
마사지 업소로 위장 성매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인신매매 및 자금세탁 조직이 적발됐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LVMPD)과 연방수사국(FBI)은 공동 수사를 통해 인신매매와 자금세탁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조직을 검거하고 4명을 체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황지섭(27)과 중국 국적의 화 샤오(35), 청청 리(41), 지안밍 리(53) 등 4명이 인신매매, 자금세탁 공모, 불법 영업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그들은 라스베이거스 센

트럴 밸리 지역 내 마사지 업소 여러 곳을 성매매 알선 및 자금세탁 거점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는 '미드나이트 로즈 스파(Midnight Rose Spa)', '영 스파(Young Spa)', '존스 스테이션 가라오케 & 바(Jones Station Karaoke and Bar)' 등으로 확인됐다. LVMPD는 해당 업소들이 정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가장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세탁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연계된 것으로 보고 추가 연루자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송영채 기자

대법관 사칭 편지 소셜연금 노린다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들을 노린 연방 대법원 명의의 위조 편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CBS뉴스는 사회보장국(SSA) 감사

관실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해 경고했다고 16일 보도했다. SSA에 따르면 문제가 된 편지에는 연방대법원 인장이 찍혀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

법관의 서명까지 포함돼 있다. 편지 형식은 수신자를 '범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는 공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와 금전을 탈취하기 위한 사기라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가짜 편지는 수신자의 이름을 기재해 발송된다. 편지는 사회보장번호

(SSN)가 유출됐다는 내용이다. 이어 "대법원이 재무부에 자산 동결을 요청했다"며 "자산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본인 책임"이라는 위협성 문구까지 담고 있다. 감사관실은 "사기범들이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짜 SSA 웹사이트 링

크를 보내 로그인 정보를 빼내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신고는 SSA 감사관실을 통해 전화(800-269-0271) 또는 온라인(ig.ssa.gov)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절인과 함께 인생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드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젤렌스키, 또 닭 쫓던 개 신세되나

트럼프, 우크라이나 영토 내줄 듯
러시아 “도네츠크 전역 주변 종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닭 쫓던 개’ 신세로 몰렸다. 미국에 줄곧 요구해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받기는커녕 기를 쓰고 사수에 나선 주요 영토마저 미국과 러시아의 거래 대상이 될 위기라서다. ‘트럼프 다루기’에 능숙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외교술이란 평가가 나온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도네츠크주 전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러시아에 넘기는 걸 전쟁 종식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체는 의명을 요구한 두 명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장악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일부를 내줄 의향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이곳을 노려왔지만, 무력으로 전역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 러시아의 서진 정책으로부터 수도 키이우를 지키는 데 핵심 지역인 만큼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WP는 “백악관 일부 참모들이 이번 요구를 지난 8월 미·러 정상회담 당시



지난 8월 1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포괄적 영토 요구보다는 ‘진전’이라고 봤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우크라이나로선 자신의 다리를 아무 대가 없이 파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과 접촉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토마호크 지원을 놓고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 WP는 “통화 전까지 트럼프가 토마호크 제공을 검토하며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높이려 했다”며 “그러나 통화

이후 미사일에 관한 모든 논의를 ‘톤다운’하고, 푸틴과 추후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이 ‘불명예스러운’ 전쟁을 종식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시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토마호크를 생각하지 않고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내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한국인 포함 2030, 심장마비로 캄보디아 화장장 많이 와”

피살 대학생 부검한 사원 가보니
현지 교민 “범죄피해 가능성 높아”
고문으로 숨졌다는 대학생 부검
“명 많지만, 흉기 흔적은 발견 못해”
조현 “10여명 추가체포, 2명 구출”

20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 양국 공동부검 결과 대학생 박모(22)씨의 시신에선 전신에 피멍 등 구타 흔적은 발견됐지만 흉기에 의한 자창(刺創)이나 장기적출 등 신체 훼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을 향후 국내에서 진행할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와 양국 수사 결과를 종합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공동 부검은 오전 9시 27분(현지시간)부터 박씨 시신이 안치된 캄보디아 프놈펜 톿틀라 사원에서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부검에 정통한 관계자는 “박씨의 시체 전신에 멍은 많이 보였지만 흉기에 찔리거나 흉터를 켜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타를 당했다고 해서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앞서 검안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사인으로 기재했지만, 직접사인인지는 약·독물검사를 통해 심장마비를 초래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까지 검증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부검 후 화장한 박씨의 유해는 21일 오전 7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날 부검에는 양국에서 6명씩 참여했다. 한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복청 수사관, 법무부 국제형사와 검

사 등 6명, 캄보디아 측도 경찰청 담당자, 부검의 등 6명이다. 이들이 검은색 승합차 3대에서 내려 장비를 챙겨 톿틀라 사원 내 안치실로 들어가자 캄보디아 경찰은 50여 명을 배치해 폴리스라인을 치고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 8월 8일 캄푹주 보코산 ‘웬치(범죄단지)’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박씨 몸에는 멍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 현지 검경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지난 10일 구속기소했고, 범행을 주도한 중국 동포 2명도 추적 중이다.

부검이 진행된 톿틀라 사원은 주로 프놈펜 현지 무연고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다. 미리 둘러본 사원 시신 안치실 앞 탁자에는 30~40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정과 함께 중국 과자, 콜라, 까짜 달러, 꽃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원 관계자는 “20·30대 중국인의 시신이 이곳에 가장 많이 오고, 한국인도 2~3개월 간격으로 시신이 안치된다”고 말했다. 현지 교민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20·30대 외국인이 심장마비 사인으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범죄 피해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송환된 64명 중 58명에 대해 투자리당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명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이송됐고, 5명은 풀려났다. 이날 대전지검 홍성지원 등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문상혁·김창용 기자

지역별로 ▶충남경찰청(45명) ▶경기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경찰청 및 법무부 관계자와 캄보디아 경찰이 20일 프놈펜 도심 톿틀라 사원에서 대학생 박모씨 시신 공동부검을 마친 뒤 이날 밤 유해 송환에 앞서 화장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놈 국토안보부 장관, 호화 전용기 구매 논란

걸프스트림 2대 1억7200만불
관사 인테리어 이어 또 논란

국토안보부가 1억 7200만 달러를 들여 신규 전용기 2대를 구매할 사실이 드러나면서 크리스티 놈(사진) 장관의 ‘호화 지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의 해안경비대는 놈 장관과 부서 고위 인사들의 이동을 위해 걸프스트림 G700 제트기 2대를 1억 72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안경비대는 당초 노후화된 걸프스트림 V 제트기를 교체하기 위해 5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만 요청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대가 아닌 2대를



걸프스트림 G700 제트기 내부. [걸프스트림 엑스(X) 캡처]

구매했고, 총비용도 기존의 예산 요청 규모를 훨씬 초과했다.

G700은 제조사인 걸프스트림이 “업계에서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제트기”라고 홍보하는 고급 기종으로, 장거리 비행에 적합한 쾌적한 환경과 고급 편의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국토안보부 공보실 관계자는 NYT 질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기존 항공기가 20년이 넘도록 운용돼 안전상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출 규모가 초기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이유와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사 딜리로 하원의원과 하원 국토안보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렌 언더우드 하원의원은 놈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용기 구매에 쓰인 자금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썩다운 상황에서조차 신규 호화 전용기를 구매한 것은 해안경비대의 운영보다 장관 개인의 안락함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놈 장관은 과거에도 사치성 지출로 잦은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는 해안경비대 사령관을 위해 마련된 해변 관사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해 비판받아왔다. 또한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재직 시절인 2021년에는 세금 6만 8000달러를 들여 관사를 재단장하면서 고가의 러그, 샹들리에, 사우나를 설치해 도마 위에 올랐다.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www.immediatehousecalls.com

Jiho Choi, M.D.

(NPI: 1225149859)

미국 여행 방문 시 미 전역 무비자 & 무보험 환자 환영 전화 치료와 처방 (\$110+)

Phone / Text / Photo / Kakao Talk

301-338-8119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6 메디케어 등록안내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5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6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 예약 703-973-5900

무료 상담

애난데일 지점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GRAND
OPENING



오 항 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800-232-5014



Michelle Kim
703-337-0910



Melissa Kang
410-216-1553

매주 토요일 무료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27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216-1553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9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
료
과
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495

395

Little River Tnpk.

중양일보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바디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테일 **303-354-1515**
2층 8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0월 Special 가을맞이 SALE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일품 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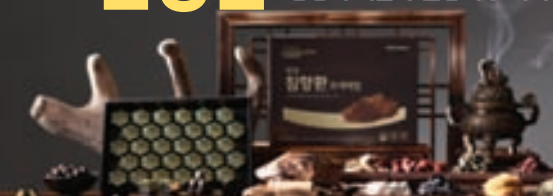
신뢰 계승·신속 배송과 선의대인 특유의 매력



대박 SALE ~~\$40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여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알제리 영신 생 로알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 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혼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파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가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코크린 정 가장성 뇌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에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	--	--	--	--	---

여당, 언론·유튜브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 손해 추진

정청래 “정보통신망법 조속히 처리”
‘악의로 허위정보 유통’ 책임 묻기로
언론노조 “권력감시기능 위축 우려”
야당 “언론 입찰막, 표현자유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추진한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속히 (정기국회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배액 배상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특정 인종·국가·지역·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 정보’로 각각 정의했다. 책임을 지는 ‘정보게재자’는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유튜브 등이다. 정보 전달을 업으로 삼은 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했다는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가 지도록 했다. 다만, 특위는 악의성 입증을 객관화하기 위해 ‘악의 추정 요건’ 8가지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자료 미제출 ▶이미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의 유통 등이 악의적 정보로 추정된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증명된 손해액 외에 추가 손해액을 5000만원까지 인정하고, 이러한 전체 손해액에 대해 배액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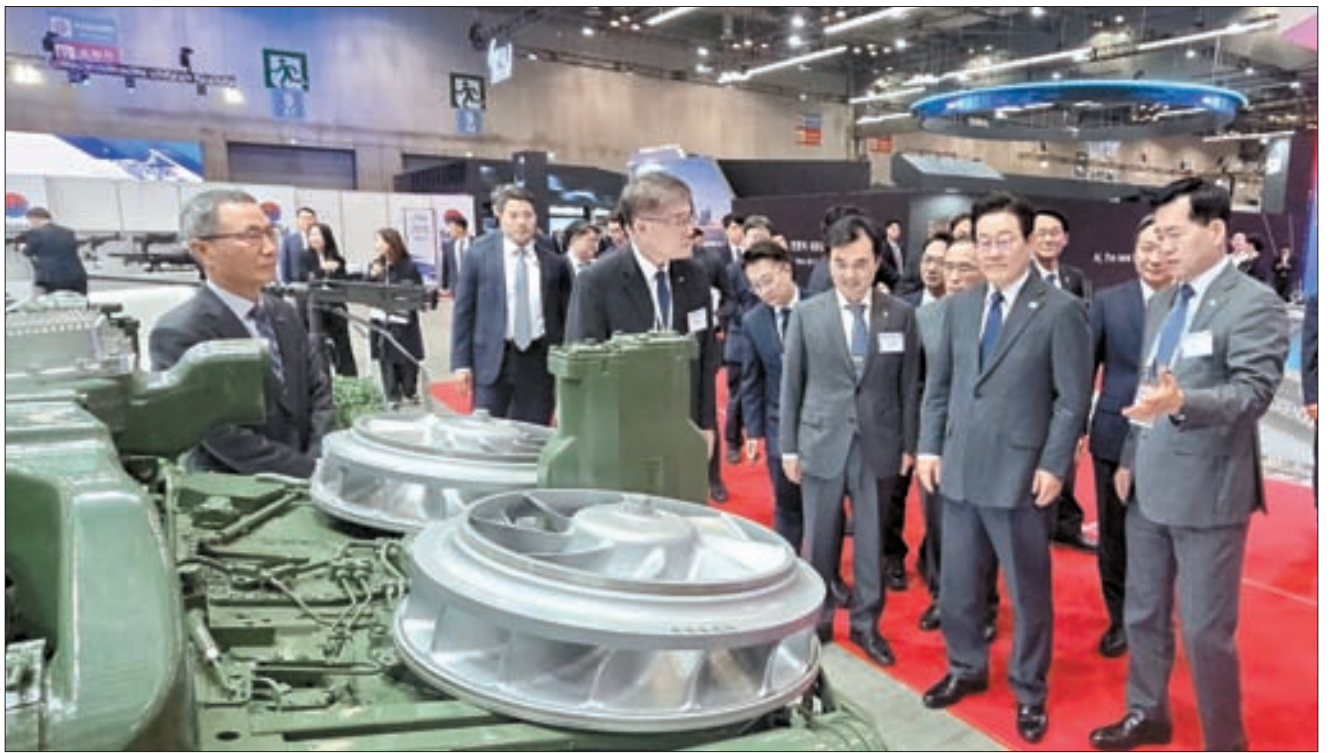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유튜버 등이 얻은 ‘슈퍼챗’ 수익은 몰수·추징 처벌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른바 ‘입찰막 소송(봉쇄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위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시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언론 및 유튜브에 복수심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안다”며 “중간판결이 인정되면 ‘일단 (소송을) 걸고 보자’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이란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왔고, 8개 악의 추정 요건엔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거나 내부 제보를 위촉시킬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찰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수빈 기자



방산 전시회 둘러보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5’에서 국산 K2전차 파워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딸 축의금 논란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국감 중 결혼, 피감기관들도 참석
야당 “사퇴를” 최 “미안하게 생각”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달라졌다. 평소와 달리 야당 공세에 고개를 숙이며 과방위 국정감사가 파행 없이 진행됐다.

20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피감기관과 언론사 간부들도 상당수가 결혼식장을 직접 찾았다”며 “나중에 없어지긴 했지만 온라인 청첩장에 신용카드 계좌 결제 링크까지 올라오며 국민적 분노를 샀다. 국감 기간 중에 있었던

결혼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며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의 사례 갖고 꼼꼼한 지적에 매우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딸과의 메시지를 공개한 최 위원장은 “결혼식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는 요지다”며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님께 제가 상처를 드린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다툼 끝에 욕설을 한 박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전준형 YTN 노조위원장에게 “박 의원이 이런 행사를 가졌으면 MBC는 스무 쪽지 할 거고, YTN은 한 열 쪽지를 돌릴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저희 딸에게 화환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큼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김현 의원)이 광고 영업사원도 아니고 방송국 광고 얘기할 필요가 있냐” 등 야당의 공세에도 격앙된 반응을 자제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우영 의원과 박정훈 의원이 악수한 이후 국감 중에는 정쟁하지 말자는 신사협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찬규 기자

서울 “쥐 출몰” 민원 급증... 덧 놓고 방역반 꾸려 쥐와의 전쟁

강남역·광화문 등 도심서도 목격
“기후 온난화로 개체수 늘어남”
강남구, 곳곳 스마트 트랩 50대 설치
관악구, 쥐약 뿌리고 방역대책 마련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40)씨는 올해 유독 쥐를 많이 봤다고 한다. 시커먼 쥐들은 단지 내 음식물쓰

레기 수거장을 훑거나 놀이터 정자 주변 등을 활보했다. ‘저생원(鼠生員)’의 출몰은 하수관 수위가 높아지는 집중호우 이후 더 잦았다. 이씨는 “얼마나 자주 목격됐으면 아이들이 쥐 사체를 보고도 놀라지 않을 정도”라며 “주변이 개발되면서 터전을 잃은 쥐들이 구축으로 몰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뽕족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쥐 출몰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역과 광화문, 홍대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업지역은 물론 변두리 주거지도 마찬가지다. “쥐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지며 시민 불안이 커지자 자치구들은 ‘쥐와의 전쟁’에 나섰다.

20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서울 시로부터 받은 ‘서울 시내 쥐 출몰·목격 민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79건이던 민원 건수는 지난해 2181건으로 확 늘었다. 올해도 7월 기준 이미 155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25개 자치구가운데 특히 강남·마포·관악구에서 민원이 집중됐다. 상업지역의 음식물 쓰레기가 쥐 출몰의 원인으로 꼽힌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뇌사 아닌 청장년 장기기증자, 셋 중 둘은 여성이었다

(35~64세)

이식 받는 경우는 남성이 63%
혼인비율 높은 35~64세 경향 뚜렷
“사회·경제적 요인, 성 역할 등 영향”

기증자가 생존 시 자기 간 일부나 신장 한쪽 등을 내주는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 여성 기증자가 남성 기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

터 2025년 8월까지 총 1만3552명의 생존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 이 중 남성이 6587명(48.6%), 여성이 6965명(51.4%)으로 여성이 378명 많다. 이런 경향은 혼인자 비율이 높은 청장년에서 한층 뚜렷했다. 자료에 따르면 35~64세 기증자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65.6%, 34.4%였다.
반면 생체 장기이식 수혜자(1만3552명)는 남성(8474명·62.5%)이 여성(5078명·37.5%)보다 많았다. 여성 기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5~64세에서도 남성 수혜자가 훨씬 많다.

생존자와 달리 뇌사자 장기기증은 양상이 달랐다. 기증자의 66.1%(1617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33.9%(830명)에 그쳤다.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외상으로 인해 남성 뇌사자 발생 비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뇌사자 장기이식 수혜자 역시 남성(65%)이 여성보다 많다.
생체 장기기증의 ‘성별 불균형’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음주흡연율이 여성보다 높고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비율도 높아 기증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남성이 생체

를 책임지는 가정은 이식 수술로 인한 수입 손실 등을 우려해 여성이 기증자로 나서기도 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족 간 장기이식을 당연한 도리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더 큰 사회적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몇 년 전 간경화를 앓는 시아버지에 간 일부를 기증한 40대 주부 A씨가 이런 사례다. 당시 남편과 다른 가족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기증 안하면 한달 내 돌아가신다고 하니 온 가족이 나만 쳐다봤다. 내키지 않아

도 도리가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 중인 간호사 B씨는 “기증 대상자 선정 때 가족 내 압박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돼 있지만, 가려내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사회·경제적 요인, 성 역할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추정되나 구체적 원인 규명을 위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복지부는 장기기증에 부당한 압력을 확인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예스더·남수현 기자



설악산 첫눈... 오늘 서울 아침기온 4도 전국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20일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 일원에 첫눈이 내렸다. 지난해 설악산 첫눈은 올해보다 하루 빨랐다. 기상청은 오늘(21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를 기록하고 체감온도는 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사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해병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영장 청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0일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110일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이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자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이들은 관여한 내용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연루돼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결론 내려 경복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른바 ‘VIP 격노’ 후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바꿨다.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보직 해임당한 뒤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되기도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순직 해병이 사망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 업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 공직범죄”라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VIP 격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졌으나 수사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 등 전반적인 직권 남용 범죄의 공범이라고 청구서에 기재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이날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다.

김성진 기자

청약도 대출규제...“아이 넷 무주택 12년, 현금 없어 포기”

“서울 84㎡, 현금 최소 10억 있어야”
높은 청약 점수에도 포기사례 속출
규제 피한 오피스텔, 수요 몰릴수도

대기업 직장인 이모(39)씨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면서 아파트 청약 당첨의 꿈을 접었다고 했다. 아이 4명에 무주택 기간도 12년인 이씨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점수가 사실상 만점인 95점이다. 이씨는 “아이가 많아 최소 전용면적 84㎡는 필요한데, 분양가가 대부분 15억원이 넘는다는”면서 “대출이 줄어 현금만 최소 10억원 넘게 있어야 한다. 그 돈이 있으면 이미 집을 샀을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담은 10·15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씨 사례처럼 주요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현금 부자가 아니면 노릴 수 없게 됐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근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551만1000원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평균 15억4737만원에 해당한다. 최근 청약



진행한 서울 핵심 지역은 59㎡의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었다. 15억~25억원 서울 아파트는 대출이 4억원까지밖에 안 나오는 데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도 없다.
자급률이 부족한 2030세대도 내 집 마련이 버거워졌다.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김모(35)씨는 그간 모은 2억5000만원에 대출을 끼고 수도권 7억~8억원대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다.
김씨는 “부부 합산으로 연 1억원 남짓 소득이 나오는데, 당초 계획보다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 집 계약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연소득 1억원 가구가 규제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산금리 1.5%를 적용해 변동형 금리로 최대 5억87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제로 가산금리가 3%로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가 8600만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한 재개발 빌라나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조짐도 있다. 동탄2신도시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27평 아파트 매물이 딱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최근에 호가를 5000만원 올려 15억원 이상이 아니면 매수가 어렵다”고 했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은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가 유지돼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서울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잠실 시그니엘 등 초고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김남준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종류	주소	가격	특징
주택	8110 Sawdust Run Dr, Springfield, VA	\$625,000	방 3, 최2+2, Main Level 풀집 좋은 마루, 1~2층 데크, Cul-de-Sac 으로 어린이들이 놀기에 안전. 데크 뒤로 숲 View, 그 숲 안에 산책로 있음. 10/11/2025, 1:00~4:00 PM 오픈하우스, 10/9 마켓에 올라올 예정
	14777 Hampton McLean, VA	\$1.3M	UNDER CONTRACT
	6501 Divine St, McLean, VA	\$2.85M	SALE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970,000	SALE
	8220 Crestwood, McLean, VA	\$1,225,000	UNDER CONTRACT
매매 및 렌트	2726 Gallows Rd, Vienna, VA	\$279,900	SOLD

갤럭시부동산

최신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울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을 주택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10월 ~ 내년 1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7608 Lee Landing Dr, Falls Church, VA	1+1년	\$2,600 자격 넘치는 세입자 연결
2901 Gettysburg Sq, Vienna, VA	2년	주채원, 지난 6년간 세입자도 로리 손님. 이번에도 마켓에 내 놓지 않고 바로 연결 + 렌트 완료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주채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3년	주채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1년	주채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 주는데, 주인측 에이전트를 잘 아는 사람이라 받아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3년	주채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reville, VA	3년	주채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1994년 10월 21일 오전 출근 시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 등교하던 학생들을 포함해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95년 6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삼풍백화점 5층 건물이 붕괴해 500명이 넘는 시민이 희생됐다.



[중앙포토]

‘빨리빨리’ 고속성장의 그늘… 안전도 함께 무너졌다

딱 31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를 잇는 성수대교 다리 중앙부 48m 상판이 갑자기 무너졌다. 다리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6대가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등교하던 무학여중·고 학생 9명을 포함해 시민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떨쩍하게 보이던 다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뚝 끊어지나”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고를 두고 “국가 인프라 붕괴의 경고”라며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성수대교 붕괴는 제도와 조직의 결함이 인적 오류와 맞물려 발생한 복합적 사건이었다. 당시 건설 행정은 저비용, 단기 완공을 우선시했다. 교량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전문 인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무리한 일정과 기술적 실험이 강행됐다. 정부의 비현실적인 단가 책정은 부실 자재 사용을 유도했다. 감리 제도는 형식적이었다. 여기에 철근 용접부의 엉터리 시공, 규정 위반 중량차 통행 방치, 균열 징후에 대한 보고 무시 같은 위험 요소가 더해졌다. 성수대교 붕괴는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가 안고 있던 ‘속도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압도했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1995년 6월 29일, 이번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했다. 단 20여 초 만에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내렸다. 502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백화점 건물은 용도 변경을 반복하면서 전문가 심사 없이 설계가 변경됐다. 무리한 증축과 값싼 자재 사용, 무거운 냉각탑의 옥상 설치와 이동, 붕괴 조짐을 인지하고도 영업을 강행한 경영진의 무리수가 피해를 키운 결정

적 요인이었다. 시공·감리·행정이 뇌물과 관행으로 얽혀 부실을 묵인했다.

붕괴 사고 직후 백화점 회장 이준은 “무너진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피해도 가지만 우리 회사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런 탐욕과 제도적 안전 불감증의 결합은 눈 뜨고 보기 힘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안전’을 ‘비용’ 취급, 대구지하철의 비극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사건은 단순한 건축물 붕괴가 아니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던 세계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재난이 자연재난에서 기술 재난(인간이 만든 기술과 인간의 실수나 오류가 결합해 발생하는 재난)으로 변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한국은 1970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의 고도성장을 자랑했다. 불과 25년 만에 경제 규모는 70배나 커졌다. 산업기술이 중심을 차지하는 사회가 됐다. 서울, 특히 강남 개발은 이런 고속 성장의 상징이었다. 강남권에서 발생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속도전을 내세운 압축 성장의 시대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었다. 효율에 취한 ‘성장의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교량·터널·건물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이 의무화됐다.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했다.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서의 부실과 비리를 막기 위해 건축법상의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부실시공이나 허위 감리로 인한 사고에는 형사 책임이 따르게 됐다. ‘속도’

가 미덕이던 사회에 ‘안전’이라는 가치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안전사회를 다짐했지만 재난은 잇따랐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192명 사망)은 지하철 내부에 불에 잘 타는 내장재가 사용된 것이 화재를 확산해 피해를 키웠다. 이는 낮은 낙찰가 경쟁과 이윤 중심의 발주 구조가 낳은 한국식 개발의 귀결이었다. 비상 대피 훈련의 부재와 매뉴얼 중심의 경직된 대응 체계는 위험을 증폭시켰다. 이 참사 역시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한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만든 비극이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지하철 내장재는 불이 붙지 않는 재질로 모두 바뀌었고, 이전보다 지하철은 안전해졌다.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304명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세월호는 불법 개조로 복원성이 극히 불량해졌지만, 화물 적재량 제한을 초과해 운항했고, 감독기관은 금품과 인맥에 기대어 이를 묵인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비용 절감을 위해 승무원 교육과 비상 장비를 최소화했고, 정부의 해운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편법을 제어하지 못했다. 후진국형 재난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형 참사 주요 사례

단위: 명(사망자)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292
1994년	성수대교 붕괴 32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502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101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3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192
2014년	세월호 침몰 304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179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달리 기술재난은 대체로 예측이 어렵다. 기술재난은 재난을 촉발한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 따라서 ‘신의 행하심’ 같은 초월적 설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물의 작동 실패와 관리 부재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책임 회피·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분노와 무력감을 느낀다. 자연재난은 파괴를 겪은 후에 오히려 연대와 복구의 힘을 발휘한다.

삼풍 희생자 추모공간, 현장서 6km 떨어져

반면에 기술재난은 사회의 신뢰와 결속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가해자의 책임 소재를 놓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된다. 그 과정에서 복잡한 기술의 특성상 책임이 분산됐다. 그 후속 조치도 복잡해진다. 기술재난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윤리적·사회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런 이유로 기술재난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책임과 회복성의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대형 참사들을 겪으며 한국 사회의 안전 기준을 조금씩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재난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스러운 투쟁과 노력 덕분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재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바로 ‘기억’이다. 빠른 발전과 개발이 재난을 가져왔듯, 재난을 기억 속에서 지우는 속도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가 아닐까. 때로는 아예 감추고 싶어 하기도 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후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후대에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허리가 동강난 성수대교를 그대로 보존하자” “다

리 잔해를 타임캡슐에 넣어 물려주자” “잔해를 모아 만든 조형물을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세우자”는 주장들이 나왔다.

현재 이 사건을 기억하는 조형물은 희생자 위령비가 유일하다. 성수대교 복단 나들목(IC)에 있는 위령비는 강변북로 사이 외딴섬 같은 공간에 마련돼 있다. 도보는 물론 차량으로도 접근이 어렵다. 지도에 따로 표시돼 있지 않아 시민들 대부분은 이곳에 위령비가 있는지도 모른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말이다.

삼풍백화점 희생자 위령탑은 사고 현장에서 6km 떨어진 양재 시민의 숲에 있다. 당시 서울시는 사고 현장에 위령탑을 세우고자 했다. 하지만 비싼 땅값과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참사와 아무 관계 없는 장소에 기억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았지만, 기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한국 사회는 인색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는 그대로 추모 공간이 됐다. 붕괴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는 2개의 인조 연못이 만들어졌다. 연못 주변을 둘러싼 추모비에는 희생된 279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추모 공간은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시민들도 국가적 참사를 기억하고 공유해야 한다. ‘기억’의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난 조사를 철저히 해 제대로 된 ‘백서’를 남기는 것이다. ‘기억’의 공유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모든 재난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사건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산 자와 희생자 사이의 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재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홍성욱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여당 ‘재판소원’ 발표 당일, 각급 법원장들 “위헌 소지”

서울고법원장 “약자 구제에 문제”
중앙지법원장 “사법권은 법원에”
대법관 12명 증원에도 ‘신중론’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당일 사법부 고위 법관들이 국회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17개 법원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금 전 민주당이 4심제를 당론으로 발표했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는 요청에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 찬반 양론이 있다.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소원은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는 4심제 형태를 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아시다시피 4심제가 되면 여러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여러 비용 문제도 생기는 등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문제점도 있기 때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앞줄 왼쪽 둘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역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 헌법 논리(검토)라든가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헌법은 ‘사법권은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헌법소원 제도는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대업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인 (재판소원의) 문제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구제에서 치명

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사위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한 변호사도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제도라는 긍정적 취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민주당 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서울고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

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증원 숫자나 시기 등은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 수원고법원장과 오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선출 등이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법관의 독립성을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증원은 노골적인 코드인사를 막을 수가 없다”며 “추천위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시키면서 민주당 입김이 더 들어가게 해놓았는데, 차라리 국회에서 재판하는 게 낫겠다”고 비

판했다.

대법관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전원합의체가 2개인 구조로 재편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전원합의체 절반 이상이 보수적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이 물갈이는 못 하니 새로 뽑아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리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어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준영·김보름·석경민 기자

여당 ‘4심제 논란’ 재판소원 입법 나섰다

김병기 “재판소원 당론 아니냐” 다음날
정청래 “지도부안 발의, 당론 추진”
대법관 14→26명, 매년 4명씩 늘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에 관해 20일 “당 지도부 안(案)으로 발의해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브리핑에 참석해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말한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 청구 사유가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한편, 현재가 판결을 취소했을 때 대법원이 현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위가 발표한 다섯 가지 사법제도 개편안에 재판소원을 더해 “사법개혁 6대 의제”라고 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발언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판소원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혁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당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앞서 재판소원을 추진한 자는 뜻을 사법개혁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 기상조”라는 의견이 다

수였고, 이에 김 원내대표가 ‘공론화 후 추진’으로 결론 냈다고 한다. 사법특위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 대표가 돌연 재판소원에 힘을 실은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지도부 소속 의원)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날 김 원내대표가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 발의하지 않겠다고 한 직후 김 여준씨가 운영하는 진여 커뮤니티에서는 “내란당으로 갈 생각이나” 등 비난이 쇄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재판소원)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이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 10명의 공동 발의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의 원로 법조인도 재판소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당내에도 신중론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에는 기존 14명인 대법관(대법원장 포함)을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총 26명으로 늘리고, 기존 전원합의체를 2개 연합부로 재편하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은 대법관 전원회의 3분의 2(18명)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84.6%)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특위는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정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현재 사무처장을 추천위원으로 추가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

한 법관 2명과 각 지방변호사회장과 반수가 추천한 변호사 1명도 추천위에 들어간다. 대법원 몫 추천 위원은 10분의 2에서 12분의 1(선임대법관)로 축소되는 결과다. 또 법관 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의무 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편안에는 확정된 사건에만 일반에 허용되는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복사의 범위를 하급심(1·2심)까지 확대하는 방안, 압수수색영장 사전심 문제도를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 발표를 “사법부 파괴”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특히 재판소원에 대해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대법관 증원안은 “정권 흥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하준호·강보현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클립턴 싱글홈

SOLD

\$1.5M

방5/화4.5/차고3, 1.05 에이커
새 지붕, 새 HVAC

센터빌 타운홈

RENT

\$2,900

방3/화2.5/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굿로케이션

스프링필드 타운홈

RENT

\$3,000

방2/화2.2, 2 Assigned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함, 교통편리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700,000
방3, 화2.2, 차고2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 경 아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수잔 김

우리말 바꾸기

‘양해각서 체결’ 표현 유감

양해각서 체결'이란 표현에 대해 두 가지 유감이 있다. 하나는 '양해각서', 즉 '문서'를 '체결'한다는 표현이 주는 어색함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양해각서'를 줄여 'MOU'라고 적는 데 대한 것이다. 어느 날 경제부 선배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표현을 '교환했다'로 수정해 달라고 했다.

'체결하다'는 계약이나 조약을 공식적으로 맺는다는 말이다.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처럼 약속을 뜻하는 말과 어울린다. '양해각서'는 국가 간에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 기록하는 문서일 때도, 민간 기업 사이에 분계약 체결 전에 서로 양해된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일 때도 있다. '각서를 썼다' '각서에 서명했다'고 하듯 '양해각서' 뒤에도 '쓰다' '서명하다'가 와야 자연스럽다. 서명한 뒤 주고받는 행사를 했다면 '교환했다'고 해야 자연스럽게 통한다.

지난달 22일 한국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인공지능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때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한 언론 매체가 대부분이었다. '교환했다'는 극히 일부였다.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왔을 때도 거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였다.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양해각서'는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칭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달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K타운 맛따라기

LA한인타운 ‘닭큐멘터리’



라이언 오
CBC 레스토랑퍼티 대표

질긴 생명력의 상징과도 같다. 과거 웨스턴 길에 있던 매장이 화재로 소실되는 아픔을 겪은 뒤 북쪽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6가로 돌아오는 등 역경 속에서도 오희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2007년, 진출 당시 한국 업계 1위였던 ‘교촌치킨’은 6가에 본사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며 미주 시장 공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최근 이 매장은 옆 월남국수집을 인수하고 7개월간의 확장 공사를 거쳐 지난 9월 재오픈했다. 하지만 18년이라는 진출기간에 비해 LA 3곳, 하와이 1곳 등 더딘 확장세를 보이며 미주 시장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오히려 교촌의 ‘카파켓’ 브랜드로 알려졌던 ‘본촌치킨’의 행보는 흥미롭다. 한국에는 매장이 없지만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해 현재 미 전역에 130여 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거대 브랜드로 성장했다.

교촌과 비슷한 시기 7가와 버몬트 고바우 식당 쇼핑센터에 1호점을 냈던 ‘BBQ치킨’은 초반에는

확장세가 미미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 현재 미주에만 200여 개의 매장을 확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K-치킨 프랜차이즈로 우뚝 섰다.

BBQ의 성공에 자극받은 한국 시장의 새로운 강자 ‘BHC치킨’도 미주 진출을 선언했다. 3가와 페어팩스 파머스 마켓에 1호점을, 체프먼 플라자에 플래그십 개념의 2호점을 직영으로 오픈하며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에 시동을 걸었다. BBQ 1호점 자리에 새로 들어선 ‘77켄터키 치킨’은 라크레센터에 2호점까지 오픈했지만,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며 성장세가 둔화됐다.

8가 옥스포드 쇼핑센터와 가주마켓 내에서 ‘투존치킨’도 꾸준히 선전 중이며, ‘할머니 가래떡 떡볶이’라는 서브 브랜드로 젊은층 입맛도 잡고 있다.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치맥’ 전문점의 명백도 이어지고 있다. 웨스턴 길의 ‘타운호프 팅스치킨’, 올림픽 길의 터줏대감 ‘하이트광장’과 ‘황태자’ 등은 여전히 저녁 시간 많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한국마켓내 치킨 코너의 닭다리도 타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테디셀러다.

LA 한인타운의 치킨집들은 아버지의 노란 봉투가 품었던 따뜻한 추억을 자랑분 삼아, 이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K-푸드의 위상을 높이는 역사를 써가고 있다.

이야침에

마음이 회귀하는 곳, 고향



이 기 희
Q7 파인아트 대표·작가

위해 수천 km를 헤엄쳐 태어난 곳으로 잊지 않고 찾아간다.

연어는 강으로 돌아갈 때 지구의 자기장과 후각능력을 활용한다. 자기장은 본능적으로 방향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하천에서 부화한 물고기는 바다로 가서 성어로 자란 다음 다음 산란을 위해 태어난 강으로 회귀한다. 알을 낳을 때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모천회귀(母川回歸) 본능이 있다. 생명체는 처음 자란 곳을 좋아한다. 회귀본능(回歸本能), 귀소본능(歸巢本能)이다.

경북여고 재경 동창회 가을단합대회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서울 귀국 중 친구 배려로 사 오십여 년 만에 고교 동창들을

만났다. 얼굴도 이름도 헛갈리는 만남이었지만, 어머니가 장작불에 데운 물로 늦다야에 발을 씻어주시던 때처럼 가슴이 파스하게 저려왔다. 눈물이 났다.

이제, 내 나라인데도, 여전히 허전한 내 집으로 돌아와 동네 할머니가 손수 담긴 집된장 넣고 시래기 된장국을 끓인다. 시래기는 현대백화점에서 몽땅 구입했다. 여독이 풀리고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미국에서 평생을 살았는데도, 이웃 할머니(나를 뻔)들은 여전히 한국에 산다. 눈곱만큼 도와드리면 별의별 귀한 채소와 씨앗, 김치를 담가 주신다.

집사 아저씨와 합작으로 이웃 아이들이 ‘Welcome Home! MiMi’라는 배너를 걸어 나의 귀향(?)을 축하했다. 할머니(grandma)라고 부르지 말고 ‘미미’라는 애칭으로 부르라고 피자 사주며 사전 협의했다. 정붙이고 사는 곳이 고향이다.

덜 외롭게 살려면, 살 비비대고 사는 것처럼 따스한 강물을 엮다. 고향의 ‘별이 빛나는 밤’이 어두운 나의 창가를 찬란하게 비출 날을 기다린다.



맛있는 음식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음식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1. 센터빌 벅들 타운 \$589,000

Under Contract

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70,000

Coming Soon

방4, 화3.5, 차고 2, 최고 학교, RT267/7, 덜러즈 공항

3. 맥클린 콘도 \$409,000

Coming Soon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Under Contract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너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Pending

1. Bristow 55+ single 방4, 화3.5 차고 2 \$750,000

2. Haymarket 55+ Villa 방3, 화3.5 차고 2 \$670,000

7. 우드브리지 싱글 \$649,000

Under Contract

1997년, 방4, 화3.5 차고1, 뒷산, 최고 학교, 전부 리모델링 포토맥 물/RT95, RT1, Rt234, 디씨출근 편리

8.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Under Contract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릉, 고급 조경,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백년로, 연못, 분수, 테크, 음향 시스템 등) 클럽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교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유심칩 판매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인터넛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AFRICA CHINA
AIR CANADA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합인 혜택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튀르키예 **일주**

탑여행사가 연합상품으로 고객에게 드리는
가을.겨울 동반자 50% 특별 할인 행사

8박 9일 | \$1899+항공
\$949+항공(동반자)

출발일
11월 03일
12월 22일
세일마감: 10/22

특전
-전 일정 5성급 특급호텔(따목칼레 1박 온천 호텔)
-나라별 다양한 대표 특식
-관광 특전 옵션 포함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즐기는 유람선(전세선)
-피에르로티 케이블카
-핵심 관광지 모두 관광

이태리 일주 **크리스마스 특선**

로마의 고대 유적부터 베네치아의 낭만적인 운하까지
이태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여행!

12/23~12/30 | 7박 8일 **\$2,490+항공**

신비의 인도

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자이푸르, 파테푸르시크리

1/21~2/2/26 | 12박 13일 **\$3,790+항공**

코스타리카

국토가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멋진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곳!

2/2~2/6 | 4박 5일 **\$1,990(항공포함)**

아프리카&두바이

대자연의 위엄을 품은 아프리카와,
미래도시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두바이

2/19~3/6 | 15박 16일 **\$12,500+항공**

남미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이상품 농치지마세요~

3/16~3/28 | 12박 13일 **\$5,490+항공**

브라질&아르헨티나

3/16~3/23 | 7박 8일 **\$3,190+항공**

페루일주

Hola! 특별한 유산의 나라 페루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3/22~3/28 | 6박 7일 **\$2,990+항공**

크루즈

인생 바캉스리스트

바하마

뉴저지 출발, 왕복 라이드 포함

2/7/26~2/15/26 | 8박 9일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 Odyssey of the Seas 17만톤급
* 로열캐리비안이 독점 운영하는 민간 섬으로,
"Perfect Day at CocoCay" 경험을 제공합니다.
* 예약 가능한 캐빈이 한정돼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탑여행사 크루즈 전문 가이드가 직접 모시고 갑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본 크루즈

11/3~11/14 | 11박 12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 도쿄, 나고야, 오사카, 오키나와, 가고시마, 나가사키

VIKING RIVER CRUISES
바이킹 크루즈
전문가
상당해 드립니다

Wonderful TOUR 2025-26 Yearly Schedule			
2025	2026년 여행 미리 계획하세요	2025	2026
10/28~11/07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6차 마강양박 \$2990+항공	02/25~03/03 6박 7일 페루 일주 \$2990+항공	06/09~06/17 8박 9일 스위스 알프스 일주 \$4590+항공	09/29~10/12 13박 14일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11/03~11/11 8박 9일 튀르키예 일주 \$1899+항공, \$949+항공(동반자)	02/26~03/07 9박 10일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3590+항공	06/10~06/20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9/29~10/06 7박 8일 정통 동유럽 \$2990+항공
11/21~12/02 11박 12일 이집트 두바이 \$3899+항공	03/16~03/28 12박 13일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5490+항공	06/16~06/26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2990+항공	10/01~10/14 13박 14일 독일 일주 \$5690+항공
11/23~11/27 4박 5일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03/16~03/23 7박 8일 브라질&아르헨티나 \$3190+항공	06/17~06/28 11박 12일 영국일주 \$5890+항공	10/05~10/12 7박 8일 발칸 크로아티아 \$2990+항공
12/22~12/30 8박 9일 튀르키예 일주 \$1899+항공, \$949+항공(동반자)	03/22~03/28 6박 7일 페루 일주 \$2990+항공	06/20~07/03 13박 14일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5990+항공	10/06~10/16 10박 11일 스페인&포르투갈 \$3390+항공
12/23~12/28 5박 6일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490+항공	04/14~04/24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1차 \$2990+항공	06/23~07/03 10박 11일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10/08~10/18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590+항공
12/23~12/30 7박 8일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490+항공	04/22~05/02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6/30~07/05 5박 6일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10/13~10/23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5차 \$2990+항공
	04/29~05/12 13박 14일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07/01~07/04 3박 4일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10/15~10/28 13박 14일 프랑스 일주 \$5690+항공
	04/29~05/06 7박 8일 정통 동유럽 \$2990+항공	07/07~07/17 10박 11일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3590+항공	10/20~10/30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6차 \$2990+항공
01/21~02/02 12박 13일 신비의 인도 \$3790+항공	05/05~05/12 7박 8일 발칸 크로아티아 \$2990+항공	07/14~07/22 8박 9일 아이슬란드 일주 \$6890+항공	10/20~10/29 8박 9일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2290+항공
01/27~02/11 16박 17일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9990+항공	05/05~05/15 10박 11일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08/01~08/14 13박 14일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5990+항공	10/27~11/06 10박 11일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02/01~02/11 10박 11일 호주&뉴질랜드 \$3190+항공	05/11~05/21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2차 \$2990+항공	08/04~08/14 10박 11일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10/27~11/06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7차 \$2990+항공
02/02~02/06 4박 5일 코스타리카 \$1990(항공포함)	05/12~05/22 10박 11일 스페인&포르투갈 \$3390+항공	08/07~08/12 5박 6일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10/27~11/06 10박 11일 산티아고 순례길 \$3590+항공
02/07~02/15 8박 9일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05/19~05/29 10박 11일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08/13~08/19 6박 7일 알래스카 일주 \$2990(항공포함)	11/10~11/23 13박 14일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3980+항공
02/19~03/06 15박 16일 아프리카&두바이 \$12500+항공	05/22~05/25 3박 4일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09/04~09/07 3박 4일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11/13~11/23 10박 11일 이스라엘&요르단 \$2980+항공
		09/08~09/18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3590+항공	11/25~11/29 4박 5일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290+항공
		09/15~09/25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4차 \$2990+항공	12/23~12/28 5박 6일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490+항공
		09/23~10/03 10박 11일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12/23~12/30 7박 8일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490+항공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품격 고국일주

탑여행사 한국지사가
직접운영합니다

10박 11일 (제주포함) | \$2990+항공
8박 9일 (내륙관광) | \$2490+항공

출발 10/28~11/07

2026년
1차 04/14~04/24
2차 05/11~05/21
3차 06/16~06/26(8박 9일)
4차 09/15~09/25
5차 10/13~10/23
6차 10/20~10/30
7차 10/27~11/06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동 버스
2. 서울관광포함(경복궁, 인사동)
3. 모든 옵션 포함
4. 최고급 호텔 숙박(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5. 워싱턴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고국여행에 일본여행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동경 3박 4일 | \$1149+항공
오사카 3박 4일 | \$1149+항공

일본특선 11/01~11/05
11/08~11/13
11박 12일
11/3~11/14

일본크루즈 11/3~11/14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 / 오션뷰 발코니 요금문의

여행지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
울산/경주/경동진
강릉/속초/제주

Together in Korea
(매주 22일 이상 출발보장)

6박 7일 **내륙**
한 \$1499+항공/영 \$1699+항공

3박 4일 **서남권**
한 \$829+항공/영 \$929+항공

4박 5일 **동해안**
한 \$989+항공/영 \$1119+항공

2박 3일 **제주도**
한 \$499+항공/영 \$749+항공

6박 7일 **제주+동해**
한 \$1549+항공/영 \$187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한 \$2199+항공/영 \$2599+항공

동남아 연합투어

3박 5일 **방콕/파타야** \$490+항공
3박 5일 **하노이/하롱베이** \$690+항공
3박 5일 **다낭** \$450+항공
3박 5일 **나트랑/달랏** \$450+항공
3박 4일 **대만** \$690+항공
3박 5일 **싱가포르** \$850+항공

일본 연합투어

3박 4일 **동경** \$1149+항공
3박 4일 **오사카** \$1149+항공
5박 6일 **동경&오사카** \$1899+항공
* 2인 이상 출발보장

TMCI

고국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아산병원/경희대병원
가천대길병원

지난해 조기 마감된 인기 일정! 늦기 전 서둘러 예약하세요.

영일 단풍특선

대형버스 확정: 10/22(수), 25(토), 27(일)
출발: 10/30(목), 11/1(토)

캠버랜드 **가차 여행**

출발: 10월 28일(화)

스모키 마운틴

3박 4일 | \$1090 (모두 포함)
출발: 10월 28일(화)

미동부&캐나다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5박 6일 \$1350

뉴욕&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2박 3일 \$650

뉴욕&천심

뉴욕

3박 4일 \$899

뉴욕

타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시세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1박 2일 \$399

서부투어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출발
요세미티
5박 6일 \$990+항공
출발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출발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출발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출발
코스타리카
5박 6일 \$1300+항공
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초
알
빌딩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October 21, 2025

○ 냉·난방 ○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20년차 중간 소득 20만 달러 MIT가 1위

포브스 대학순위

조기 전형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025~2026학년도 대입 열기가 점차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달 23일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의 연례 대학 순위가 발표돼 학부모
들과 입시생들이 지원할 학교를 고르고 지원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도 완
전히 결정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위해서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재정적 관점에서
선정한 '대학 순위'를 소개한다.

버클리 등 UC 6개 캠퍼스 50위권 포진
평균 그랜트는 아이비 다트머스가 1위

US뉴스의 지난달 대학 순위에서 아쉬운 점은 입학에 초점을 둔 측면이 있어서 졸업 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포브스는 학비와 그랜트, 졸업 후 20년차에 중간 소득 등 여러가지 다른 지표로 작성했다. 경제적으로 성공해 고소득이며 영향력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면서도 학자금 대출이 적은 500개 대학을 골라 순위를 결정했다.

포브스 대학 순위의 1위는 MIT다. 특히 MIT의 20년차 중간 소득이 19만6900달러로 2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특히 MIT는 졸업 후 3년 만에 평균 연봉이 11만 200달러에 달하고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삼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오르는 비율이 99.8%를 기록한다는 점이다. 상위 10위에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LAC)의 최강자 윌리엄스가 7위에 올랐고 '연구 강국' 존스 홉킨스가 8위, UC버클리가 5위에 포함됐다.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 8개 대학 중 5개가 톱10에, 나머지 모두 상위20위 안에 들었고 캘리포니아 주립인 UC의 3개 캠퍼스도 톱20위에 들었으며 톱50위에는 6개 캠퍼스가 올라 관계자들을 기쁘게 했다.

는 1만9791명(버지니아 주립)부터 많게는 4만3718명(텍사스 주립 오스틴)에 달했다. 다만 3만5000명이 넘는 5개 대학 중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브리그엄 대학이 유일한 사립이었다. 재학생 숫자가 많은 주립들은 텍사스 오스틴에 이어 워싱턴 주립 시애틀, 플로리다 주립, 일리노이 주립 어바나 샴페인(UIUC), UC샌디에이고, UCLA, UC버클리로 이어졌다. 학부 재학생 숫자가 3만명이 넘는 사립으로는 브리그엄(37,940)에 이어서 NYU(32,343)가 있었다. 이외 공사립 통틀어 재학생이 1만명이 넘는 학교는 23곳이었고 톱50위 내에서 재학생숫자가 가장 적은 곳은 켈텍으로 1023명이었다.

주별로는 스탠퍼드를 포함한 11곳이 캘리포니아 소재지였고 MIT를 포함한 매사추세츠가 6곳, NYU를 포함한 뉴욕은 4곳 등이었다. 이외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가 각 3곳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20년차 중간 소득도 MIT의 19만 6900달러에 이어서 프린스턴이 19만4100달러였고 스탠퍼드가 18만1200달러를 기록했다. 이들을 이어서 17만 달러대가 9곳, 16만대가 8곳, 15만대가 13곳으로 밝혀졌다. 50개 학교중 가장 적은 곳은 플로리다 주립(12만7500달러),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 채플힐(12만 1900달러)이었다.

장병희 객원기자

◆ 톱50개 대학 분석
포브스의 톱50 대학에는 15개의 주립대학이 선정됐는데 학부생 숫자가 적게

2025 포브스 대학순위									
순위	학교명	소재지	공사	학부 재학생수	평균 그랜트	평균 부채	20년차 중간소득	20년차 총소득	비고
1	MIT	MA	사립	4,729	\$58,331	\$12,071	\$196,900	\$931,140,100	
2	컬럼비아	NY	사립	9,511	\$65,173	\$14,737	\$159,700	\$1,518,906,700	IVY
3	프린스턴	NJ	사립	5,690	\$60,629	\$7,667	\$194,100	\$1,104,429,000	IVY
4	스탠퍼드	CA	사립	9,383	\$64,164	\$14,075	\$181,200	\$1,700,199,600	캘리포니아
5	UC버클리	CA	공립	34,306	\$25,951	\$6,529	\$170,100	\$5,835,457,600	UC캘리포니아
6	하버드	MA	사립	12,464	\$64,942	\$8,729	\$177,400	\$2,211,113,600	IVY
7	윌리엄스	MA	사립	2,302	\$64,176	\$8,171	\$173,900	\$400,317,800	LAC
8	존스홉킨스	MD	사립	8,654	\$58,456	\$10,600	\$146,200	\$1,265,214,800	
9	예일	CT	사립	8,009	\$59,076	\$5,256	\$171,900	\$1,376,747,100	IVY
10	유젠	PA	사립	12,929	\$59,721	\$13,512	\$178,300	\$2,305,240,700	IVY
11	벤틀리	TN	사립	7,284	\$57,723	\$11,345	\$151,500	\$1,103,526,000	
12	라이스	TX	사립	4,712	\$53,526	\$10,083	\$150,600	\$709,627,200	
13	시카고	IL	사립	9,174	\$58,877	\$13,890	\$151,000	\$1,385,274,000	
14	코넬	NY	사립	16,040	\$56,741	\$8,574	\$158,600	\$2,543,944,000	IVY
15	UCLA	CA	공립	34,398	\$22,441	\$6,406	\$149,200	\$5,132,181,600	UC캘리포니아
16	노스웨스턴	IL	사립	10,210	\$64,463	\$7,403	\$144,700	\$1,477,387,000	
17	다트머스	NH	사립	4,948	\$66,480	\$6,152	\$178,700	\$884,207,600	IVY
18	브라운	RI	사립	8,026	\$58,378	\$11,780	\$160,300	\$1,286,567,800	IVY
19	애머스트	MA	사립	2,017	\$65,623	\$9,823	\$143,900	\$290,246,300	LAC
20	UC샌디에이고	CA	공립	34,808	\$24,176	\$5,294	\$156,000	\$5,430,048,000	UC캘리포니아
21	미시간주립앤아버	MI	공립	33,921	\$22,005	\$9,814	\$142,100	\$4,820,174,100	
22	듀크	NC	사립	7,343	\$59,327	\$11,551	\$164,000	\$1,204,252,000	
23	스위스모어	PA	사립	1,713	\$62,084	\$5,970	\$162,500	\$278,362,500	LAC
24	켈텍	CA	사립	1,023	\$60,201	\$10,614	\$175,400	\$179,434,200	
25	워싱턴세인트루이스	MO	사립	8,821	\$61,036	\$7,789	\$146,800	\$1,294,922,800	
26	클레어먼트매케나	CA	사립	1,410	\$52,149	\$7,431	\$175,000	\$246,567,000	LAC
27	에모리	GA	사립	7,606	\$50,828	\$10,420	\$143,300	\$1,089,939,800	
28	USC	CA	사립	22,628	\$43,208	\$9,085	\$154,800	\$3,502,814,400	캘리포니아
29	웰즐리	MA	사립	2,538	\$61,549	\$8,059	\$138,800	\$352,274,400	LAC
30	플로리다주립	FL	공립	38,113	\$10,724	\$6,562	\$127,500	\$4,859,407,500	
31	UC어바인	CA	공립	30,132	\$21,533	\$6,223	\$152,200	\$4,586,090,400	UC캘리포니아
32	조지아텍	GA	공립	19,888	\$13,423	\$7,726	\$168,000	\$3,341,184,000	
33	조지타운	IN	사립	9,157	\$51,128	\$9,073	\$165,500	\$1,515,483,500	
34	버지니아주립	VA	공립	19,791	\$29,675	\$10,002	\$153,900	\$3,045,834,900	
35	노스캐롤라이나주립채플힐	NC	공립	21,214	\$15,365	\$8,243	\$121,900	\$2,585,986,600	
36	포모나	CA	사립	1,814	\$63,773	\$12,046	\$143,800	\$260,853,200	LAC
37	매릴랜드주립칼리지파크	MD	공립	32,557	\$12,142	\$9,453	\$139,700	\$4,548,212,900	
38	UIUC	IL	공립	36,970	\$17,524	\$7,193	\$144,200	\$5,331,074,000	
39	보든	ME	사립	1,996	\$57,280	\$14,218	\$155,100	\$309,579,600	LAC
40	브리그엄	UT	사립	37,940	\$6,284	\$5,745	\$137,800	\$5,228,132,000	
41	조지타운	DC	사립	8,670	\$46,729	\$10,480	\$168,600	\$1,461,762,000	
42	UC샌타바버라	CA	공립	25,091	\$21,732	\$7,480	\$152,300	\$3,821,359,300	UC캘리포니아
43	카네기멜론	PA	사립	7,497	\$47,550	\$6,883	\$167,400	\$1,254,997,800	
44	UC데이비스	CA	공립	33,442	\$21,258	\$6,182	\$147,900	\$4,946,071,800	UC캘리포니아
45	보스턴U	MA	사립	22,942	\$55,080	\$11,732	\$150,100	\$3,443,594,200	
46	텍사스주립오스틴	TX	공립	43,718	\$12,060	\$6,066	\$141,100	\$6,168,609,800	
47	워싱턴앤드리	VA	사립	1,876	\$58,323	\$10,360	\$164,400	\$308,414,400	
48	콜게이트	NY	사립	3,210	\$56,696	\$9,807	\$176,100	\$565,281,000	LAC
49	NYU	NY	사립	32,343	\$48,269	\$9,849	\$151,100	\$4,887,027,300	
50	워싱턴주립시애틀	WA	공립	39,850	\$14,390	\$6,813	\$139,900	\$5,575,015,000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2025
Ebenezer
Year End Single party

한국과 미국 전역의 싱글들을 위한
연말 파티에 200명 초대 합니다.
풍성한 상품 및 1000불 상품, 양공티켓

12월 6일 토요일 6시 Pine Plaza
7 Broad Ave 4th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True Education

BUILDING FUTURES

새 학년 준비반 모집

지난 학년 부족했던 과목을 보완하고 새 학년을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True Education이 자녀의 학업 자신감과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백투스쿨
스페셜 이벤트

Free Trial - Choose Any 4 Classes!

지금 전화주시면 원하는 과목을
무료로 체험 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 English ☒ Math ☒ Biology ☒ Chemistry ☒ Physics
☒ US History ☒ World History ☒ Computer Science

*Limit Offer

“SAT 평균 300점 이상 올린
선생님이 직접 지도합니다”

· 개인 레벨에 따른 집중 교육
· SAT / ACT / PSAT / ISEE / AP
· GPA & College Counseling (내신성적과 대학진학 상담)

True Education에서 이유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2025 Our Students Got Accepted to

YALE
Stanford
University
PENN
SMU
MIT
Harvard
Cornell
Brown
Dartmouth
Georgetown
Northwestern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M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가 6일(현지시간)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UNHCR 연례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방한 “태권도, 난민 청소년에 가장 인기 외국인 회생해 표 얻는 정치 없어야 한국 AI난민심사, 인도적 혁신 가능”



필리포 그란디 대표가 8월 29일 콩고민주공화국 난민 캠프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난민은 위협이 아닙니다. 단지 안전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필리포 그란디(68)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지난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외국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만, 진정한 지도자라면 사람들을 두려움이 아닌 연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란디 최고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누군가 유엔의 성취를 묻는다면 한국의 역사를 보라’고 한 말이 인상 깊었다”며 “실함의 아픔을 겪고 세계 각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국제사회와 난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임명 이후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방한인 이번 방문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방한의 목적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지난 10년간 UNHCR과 전 세계 난민에게 보여준 지원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왔다. 또 새로운 정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

기 위해서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코트디부아르 난민들이 2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더는 난민이 아니라고 선언하던 날이 기억난다. 또 콜롬비아 2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에게 10년간 특별 지위를 부여해 사회 통합을 추진한 일도 큰 감동이었다.”

-한국의 난민 정책 평가와 역할 강화 방안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민간모금 중 개인기부자 규모도 세계 2위(1위는 스페인)다. 그런데도 난민 인정률은 3%에 불과하다. 매년 1만8000명 이상이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고 있지만 이중 3%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다. 심사 대기 기간을 줄이고 일시 체류자에게도 사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대목에서 한국은 AI를 활용해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

-한국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난민 자체가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불안은 줄어들고 인식도 바뀔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외국인을 회생양으로 삼아 표를 얻으려 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두려움이 아닌 연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충격이긴 했다. 직원도 5000명 정도 축소된 상황인데, 유엔 80주년 개혁 이니셔티브(UN80)를 통해 조직 구조를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몸집은 작아질 수 있지만, 지난 75년간 그랬듯이 우리는 여전히 현장을 지킬 것이다. 이제 미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도 함께 책임을 나누길 바란다.”

-태권도박애재단(THF) 출범 등 스포츠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태권도는 난민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다. 난민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 오르는 것은 세상에 ‘희망의 서사’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란디 대표는 끝으로 임기 마지막 한마디를 묻는 말에 “희망”이라고 답했다.

한지혜 기자

유펜 김도형 교수, 미국 최고 권위 젊은 과학자상 수상

유펜 화공학과 김도형 교수
젊은 석학 연구자 20명 선정
5년 간 87만불 연구비 지원
청정 에너지 기술 기여 기대

력을 지니고 있다”며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가 진행 중인 연구는 전기화학 반응의 효율을 높이고 반응 경로를 정밀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전환하는 전기화학 반응처럼 전기를 이용해 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에 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기존의 고온·고압 공정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 배출이 적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고체 촉매의 반응 부위를 원자 단위로 이해하면 에너지 변환과 화학 생산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반응 부위의 상호작용과 성능 변화를 규명해 새로운 촉매 시스템 개발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패커드 재단의 지원을 통해 에너지와 소재 생산 방식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커드 펠로우십은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 휴렛패커드(HP)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패커드가 1988년 설립한 프로그램이다. 젊은 과학자와 공학자에게 대담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자금을 지원해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55개 대학의 735명이 수상했으며, 누적 지원금은 5억 달러를 넘는다.

정운재 기자

▶1면 포브스 대학순위에서 계속

졸업시 안고 나가는 평균 부채는 컬럼비아의 1만4737달러부터 예일의 5256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그랜트는 가장 많은 다트머스가 6만6480달러였으며 6만 달러가 넘는 곳은 13개 학교, 5만~6만 달러는 17개 학교로 정리할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계산을 더해볼 수 있다. 현재 학부 재학생 숫자와 20년차 중간 소득을 곱해보면 가상의 20년차 총소득을 산출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결과는 공립 학교들의 순위가 높은 이유와 경제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난 것

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의 존재 의미를 재확인해 볼 수 있다. 총소득 순위의 1위는 61억 달러에 달하는 텍사스 주립 오스틴이다. 이어서 UC버클리가 58억 달러, 워싱턴 주립 시애틀이 55억 달러, UC샌디에이고가 54억 달러로 집계할 수 있다. 이들을 이어서 UIUC(53억), UCLA(51억), UC데이비스(49억), NYU(48억), 플로리다 주립(48억), 미시간 주립 앤아버(48억), UC버바인(48억)이 있다.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을 따져보면, 학생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코넬은 25억, 유펜 23억, 하버드 22

억 달러로 이어진다. 다만 중간 소득이 평균 소득 수치가 아니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략적인 사회 기여도는 가능해 볼 수 있다.

◆순위 선정 요소

US뉴스의 베스트칼리지 순위는 객관적인 자료와 평판 점수를 근거로 한 것에 비해서 포브스는 연방 교육부는 졸업생의 급여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로 사용했다.

▶동문 급여(20%)

페이스케일(Payscale)과 칼리지 스코어카드(College Scorecard)의 소득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느 대학에서 가

장 높은 연봉을 받는 졸업생을 배출했는지 파악했다.

▶부채(15%)

칼리지 스코어카드의 2가지 변수는 특정 대학 학생의 일반적인 부채 부담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졸업률(15%)

편입생, 파트타임 학생, 재정, 건강 또는 기타 이유로 휴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반영하기 위해 6년 졸업률을 기준으로 목록에 있는 대학들을 평가한다.

▶포브스 미국 리더 목록(15%)

포브스 미국 리더 리스트(Forbes

American Leaders List)는 포브스 순위를 차별화하는 요소 중 하나다.

▶투자 수익률(15%)

특정 기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기 위해 각 대학의 주가수익률 프리미엄을 산출한다.

▶유지율(10%)

학생 만족도를 고려하기 위해, 1학년 이후 재학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측정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3년 평균 재학률을 계산했다.

▶학업적 성공(10%)

각 대학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지표를 사용했다.

셀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바이어 희소식 ~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임대 주택 관리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임대시조,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펙션, 래드 인스펙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RENT

싱글 홈, 스프링필드
(예년데일 부근)
방3, 와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 와1

\$1,600

금매

금매 패어팩스에서
가장싼타운하우스
방2, 와1, 아담한 뒷마당
첸털리 as Is 금매

\$300,000 (임대 \$1,8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골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요.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교육·연구 모두 강한 대학으로 세계 500위권 진입할 것”

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자율전공’으로 뽑아
창의성·전문성 등 기업가정신 강조

폭스바겐과 협업, 독일서 교육·인턴
‘암호수학과’ 100억 연구용역 수주
양자컴 도입, 양자융합과 개설 예정

지난달 18일 방문한 서울 성북구 정릉의 국민대 교정 곳곳에 녹색 바탕의 현판이 걸려 있었다. 굵은 흰색 글씨로 ‘기업가 정신, 국민대학교’라고 적혀 있다. 2023년 취임한 정승렬(63) 총장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자는 취지로 제작됐다.

국민대는 자동차·디자인 중심의 특성화,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주목받는 대학이다. 2019년 서울대·KAIST 등을 제치고 전국 대학 중 기술이전 수입(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에 이전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 1위에 올라 대학가를 놀라게 했다. 2023년 취업률(70.5%)은 주요 수도권 대학 중 9위를 기록했다.

올해 한 해에만 AI·바이오 등 각종 정부 사업 수주액은 134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선 역대 최고인 13위에 올랐고, 올해 수시모집에서 경영대 경영학 전공 경쟁률(321대 1)이 전국 인문계열 학과 중 1위를 기록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정 총장에게 국민대의 현황과 비전을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수시모집 경쟁률이 크게 올랐다.
“2025학년도부터 자율전공선택제(무전공)로 신입생 30%를 뽑았다. 미리 데이터를 분석해 인기 전공에 너무 많은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다. 학생이 폭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부관 집무실의 로고 앞에서 정승렬 총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국민대는 내년 개교 80주년을 맞는다. 김경록 기자

표로 정한 전공을 공부하려면 앞으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안내하는 멘토 역할도 한다. 다른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도 졸업할 때 희망학과로 갈 수 있는 ‘오메가(Ω) 스콜 제도’도 우리 대학만의 특색이다. 전공 간 경계 없는 교육 생태계 구축이 국민대의 궁극적인 목표다.”

-학생들이 독일서 교육받고 인턴도 한다.
“경계 없는 교육 생태계는 전공 사이뿐 아니라 세계, 지역 간에도 필요하다. 우리 대학을 찾는 해외 학생들이 많아져야 하고, 국민대 학생들은 해외 취업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 폭스바겐그룹은 독일 비영리 코딩학교 볼프스부르크42에 학생 10명을 선발해 1년 동안

체류비도 주고 교육도 해준다. 참여 학생들이 현지 해커 대회에 참가해 지난 몇 년간 계속 상을 탔다. 덕분에 폭스바겐에서 인턴 근무하거나 다국적 자동차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취임 후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대는 해공 신익희(1894~1956·독립운동가) 선생, 성곡 김성곤(1913~75·쌍용그룹 창업주) 선생의 건학·창학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 정신과 실용주의를 교육철학으로 강조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엔) 전문성은 필수이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 즉 창의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도전 정신도 필요하다.”

-수학과가 정보보안암호수학과로 바뀐 뒤 100억원에 달하는 국방기술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기존 수학과가 스스로 구조조정을 했다. 9년 정도 지났는데 암호 분야에서 국내 1위라고 자부할 만큼 성장했다. 성장의 핵심은 산학 협력을 위한 경쟁력 강화다. 각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는데 자본잠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국민대는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기술 창업으로 연결하고, 수익을 다시 학교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학과에서 교수가 연구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세계 수준의 특허를 얻게 하는 방식이다. 취임했을 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가 30개 정도 있었는데 약

2년 만에 이미 50개를 넘어섰다.”

-양자컴퓨터 구축도 추진 중인데.
“곧 ‘퀀텀 레볼루션’(양자 혁명)이 도래한다. 국민대는 양자 암호기술에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지난해 12월 보안 2단계 인증을 받았다. 국민대의 기술을 보려고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찾아온다. 이를 기폭제로 양자컴퓨터에 기반한 연구 분야를 확대할 것이다. 6개월 안에 양자컴퓨터를 들여온다. 다른 대학 양자컴퓨터보다 정보 처리 역량이 10배 더 높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이후 양자융합학과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미 아마존·IBM 같은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 영역도 바이오·약학, 경영·물류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일은.
“최고 선도대학의 반열에 올라 국내를 넘어 해외 대학과 경쟁하고 싶다. 교육·연구·글로벌이 모두 강한 대학으로 ‘세계 500위권 내 대학’이 4~5년 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모든 수업을 100% 영어로 진행하는 KIBS(국민인터내셔널비즈니스스쿨)를 독립학부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유사한 국제 교육 과정을 공학과 생명과학에도 접목해 준비 중이다. 100억 원 이상 대형 연구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양성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교무위원들과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 목표를 이루고 싶다. 내년에 개교 80주년을 맞는다. ‘고등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대학’이란 비전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

김민상 기자

간호사 수요 증가, 간호대학 입학 경쟁 치열

**캘리포니아 경쟁률 20대1 수준
고소득에 일자리 많아 인기**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간호대학 입시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특히 지원자들은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립대 간호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비교적 입학이 수월한 사립대는 현상실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세리토스 캘리포니아 간호학과에 입학한 로버트 오(40) 씨는 요즘 학교 도서관에서 지내다시피 한다.

그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비가 정말 싸다”며 “어렵게 입학 허가를 받은 만큼 낙제되지 않으려 공부만 한다”고 말했다. 오씨가 다니는 세리토스 캘리포니아 간호학과와 한 학기 정원은 약 50명으로, 지원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2년 과정의 커뮤니티 칼리지 간호학과 학비는

졸업까지 약 5000달러 수준이다. 4년제 공립대 간호학과는 졸업까지 약 4만3000달러가 들어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호하는 추세다. 오씨는 “사립대학으로 갈 경우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내야 한다”며 “다들 어렵게 합격한 만큼 탈락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간호사 인기는 높은 직업 안정성과 시간당 45달러 이상의 고임금, 그리고 인력난 등으로 크게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주 간호사위원회(CBRN)에 따르

면 2022~2023년 간호학과 지원자는 5만7987명으로, 이 중 3분의 1만 합격했다. 지난해 전국적에서도 간호학과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사람도 약 6만6000명에 이른다. 공립대 간호학과 입학에 실패한 학생들은 사립대로 눈을 돌린다. 사립대는 비교적 입학이 자유롭지만, 웨스트코스트대(WCU) 등 사립대의 4년 학비는 10만~15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한 사립 간호대에 다니고 있는 신모(43) 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수업을 듣고 있다”며 “나이 들어 공부하러니 힘들 때도 많지만 실습과 졸업까지 꼭 완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학과 인기가 치솟으면서 교육기관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수진이 부족하고, 공립대와 사립대는 제한된 병원 실습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LA타임스는 2022~2023학년도 기준 가주 152개 간호학과 중 약 57%가 현상실습 자리 부족으로,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최소 500시간의 실습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합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대입 들여다보기

빈센트 김 / 카운슬러 어드미션 매스터즈

가을이면 어김없이 대학 랭킹 시즌이 찾아온다.

링크드인의 ‘미국 내 장기 커리어 성공을 위한 최고의 50개 대학’부터 포브스의 ‘미국 최고의 대학’, 그리고 화제가 된 ‘뉴 아이비’ 리스트까지. 수많은 순위표가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눈을 어지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대학 랭킹은 지도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다.”

최근 발표된 2026년 U.S. 뉴스 & 월드리포트 대학 순위를 보면, 프린스턴대가 1위를 유지했고 MIT(2위), 하버드(3위)가 그 뒤를 이었다. 흥미롭게도 예산 삭감 논란에 휘말린 시카고대학은 오히려 5계단 상승해 6위에 올랐고, 노스이스턴 대학은 실무 중심 Co-op 프로그램의 인기로 힘입어 8계단이나 뛰어 4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 고등교육 전문가는 “지표 하나가 바뀌면 전체 순위가 요동친다”고 지적한다. U.S. 뉴스는 동료 평가(20%), 졸업률(16%), 졸업률 성과(10%) 등 17가지 항목으로 순위를 매기지만 이 수치들이 과연 학생 개인의 성

장과 행복을 보장할까?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다. 포브스는 졸업 후 연봉과 ROI(투자대비수익률)를 중시하고, 링크드인은 동문 네트워크 데이터에 의존하며, 프린스턴 리뷰는 기숙사 만족도 같은 학생 행복지수에 초점을 맞춘다. 머니 매거진은 아예 등록금 대비 가성비만을 따진다. 같은 대학이라도 어떤 랭킹을 보느냐에 따라 순위가 크게 엇갈리는 이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컬럼비아 대학의 데이터 조작 논란이나 빌라노바 대학의 통계 오류 사례처럼 랭킹 자체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사건들이다. 숫자로 포장된 객관성 뒤에 얼마나 많은 주관과 편향이 숨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로나19팬데믹은 대학가에도 큰 변

화를 가져왔다. 테스트 옵셔널 정책이 확산하면서 단순한 성적 지표보다는 학생의 잠재력, 적응력, 창의력, 디지털 역량 등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랭킹은 여전히 졸업률과 동문 연봉 같은 전통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은 캠퍼스 상담 서비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학생 지원 시스템 등을 중요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무형적 가치들은 어떤 랭킹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랭킹을 출발점으로 삼되, 결정적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조언한다. “내 아이에게 맞는 대학은 꼭 1위 대학

이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들은 이제 멘토십 기회, 교수와 학생 비율, 연구 참여 가능성, 인턴십 프로그램, 캠퍼스 문화 등 랭킹에 나타나지 않는 요소들에 더 관심을 보인다. 졸업 후 진로 지원, 동문 네트워크의 실질적 도움,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랭킹의 한계를 인식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정보 수집에 나서야 한다. 직접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가상 투어에 참여해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이 좋다. Fiske Guide나 Niche 같은 학생 리뷰 기반 플랫폼에서 현재 재학생들의 생생한 후기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격,

학습 스타일, 진로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대규모 연구중심 대학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소규모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밀착 지도를 필요로 하는 타입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전공 선택도 마찬가지다. 아직 전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다양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을, 이미 목표가 뚜렷하다면 해당 분야의 강점을 가진 대학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결국 대학 랭킹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최고 순위 대학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낮은 순위의 대학이라고 해서 좋은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

대학 4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기 중 하나다.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낼 곳을 선택할 때,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판보다는 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 랭킹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아이만의 특별한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에듀 포스팅

교장 세라 박 글로벌리더십 중·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9학년은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사회는 더는 ‘좋은 학벌’만을 성공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학문적 성취를 넘어서 자신만의 강점과 실질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을 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어 지금, 지식 자체는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만이 갖출 수 있는 힘이며, 앞으로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영어 독해력: 모든 학문의 기초

고등학교에서 자녀가 접하게 될 교재와 자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분석과 해석을 요구하는 글들이다. 과학 교과서조차 단순한 실험 결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과 해석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영어 읽기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매일 신문 기사 한 편이나 전문 잡지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단순히 단어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 저자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은 SAT와 같은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 수업에서 요구하는 수십 페이지 분량의 영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논리적 사고력: 생각을 체계화하는 힘

오늘날 대학과 사회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이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자료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

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자녀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다른 관점은 없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도록 격려해야 한다.

짧은 기사라도 읽고 나면 찬성·반대 입장을 나누어 토론하거나, 같은 주제를 두고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는 활동이 좋다. 또한 수학의 증명 문제나 과학적 실험 보고서를 단순히 암기하기보다, 그 과정과 논리를 설명하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면 훌륭한 사고 훈련이 된다.

▶글쓰기: 사고를 정리하는 최선의 방법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글쓰기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사고력의 거울이다. 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생각을 구

조화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며, 다른 이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원은, 자녀가 매주 한 번이라도 짧은 영어 에세이를 쓰고 함께 읽어보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장 → 근거 → 설명 → 결론의 흐름이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쌓인 글쓰기는 대학 입시 에세이뿐 아니라 평생 학문과 직장에서의 경쟁력이 된다.

▶디지털 시대의 실용 역량

오늘날 많은 학생이 짧은 온라인 강좌나 자격증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 Python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도 기본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작은 성취는 학생에

게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동시에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디지털 역량은 기본기 위에 세워져야만 빛난다는 사실이다. 영어 독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없다면, 온라인 자격증은 단순히 종이 한장에 불과할 수 있다. 반대로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은 이 자격증을 실제 학업·활동과 연결해 더 큰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

▶기본기와 성취의 균형

9학년은 자녀가 본격적으로 배움의 주체가 되는 시기이다. 부모의 역할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바른길을 선택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자격증 취득이나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깊이 읽는 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그것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힘이다. 이 세 가지 기본기는 어떠한 기술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 줄 것이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저렴한 비용

2.편리한 풀서비스

3.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밀워키 브루어스와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에서 투타 원맨쇼를 펼친 LA다저스의 수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NLCS 4차전 투타 원맨쇼 ‘선두타자 홈런’ 친 최초 선발투수 타구 속도·비거리 기록 갈아치워

“야구 역사상 최고 선수 논쟁은 (오타니로) 끝났다. 이제는 (오타니의 활약이)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단일 경기 최고 활약이었는데에 관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다.”(USA투데이)

지난 17일 메이저리그(MLB)의 역사를 새로 쓴 LA 다저스의 투수 겸 타자 오타니 쇼헤이(31·일본·사진)의 영화 같은 활약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오타니는 이날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4승제) 4차전에서 투타 원맨쇼를 펼쳤다. 선발투수로서 6이닝 2피안타 3볼넷 10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고, 1번 타자로서 3타수 3안타(3홈런) 3타점 3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다저스는 5-1로 이기고 시리즈 전적 4전 전승으로 2년 연속 월드시리즈(WS·7전4승제)에 진출

했다.

이날 경기는 오타니가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주연까지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마운드에선 시속 100마일이 넘는 직구로 밀워키 강타선을 잠재웠다. 6이닝 동안 안타는 2개만 내줬고 삼진은 10개를 잡아냈다. 마운드에서의 활약은 타석에서의 활약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이었다. 1회 투구를 방금 마친 오타니는 이어진 공격에서 곧바로 밀워키 선발 호세 퀴타나로부터 우월 솔로홈런을 뽑았다. 선두타자 홈런. 2회 볼넷을 골라낸 오타니는 팀이 3-0으로 앞선 4회 다시 한번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다저스타디움 지붕을 넘긴 비거리 468.7피트의 초대형 홈런이었다. 7회 또 한 번의 솔로홈런으로 다저스타디움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오타니의 활약상은 하루가 지나도록 진한 여운을 남겼다. MLB닷컴은 ‘오타니가 역대 최고 경기를 펼쳤다는 13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경기의 의미를 다

각도로 분석했다. ▶메이저리그 페넌트레이스와 포스트시즌을 통틀어 역대 최초로 선두타자 홈런을 기록한 선발투수 ▶가을야구에서 홈런 2개 이상을 친 최초의 투수 ▶3홈런과 10탈삼진을 함께 기록한 최초의 선수 등 오타니가 연 각종 신기원을 소개했다. 그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숫자로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MLB닷컴에 따르면, 오타니는 2015년 스탯캐스트가 도입된 이래 한 경기에서 타구 속도가 시속 116마일 넘는 홈런을 두 차례 이상 때려낸 최초의 타자다. 또 그의 두 번째 홈런 비거리(468.7피트)는 MLB 가을야구 역사상 최장거리였다. 오타니 홈런의 타구 속도는 각각 시속 116.4, 116.9, 113.6마일이었고, 비거리는 각각 446.1, 468.7, 426.8피트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러한 타자가 마운드에 올라 시속 100마일 넘는 공도 던진 점이다. 오타니의 이날 직구 최고 속도는 시속 100.3마일이었었는데, 이날 마운드에 오른 다저스와 밀워키 투수 중 가장 빨랐다.

고봉준 기자

LAFC 500호 골 주인공은 손흥민

손, 전반 42분 원발슛 9호골
경기 2:2 무승부, 정규리그 끝나
LAFC 서부 3위 플레이오프 진출

손흥민(33·LAFC)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자신의 시즌 9호이자 구단 통산 500호 골을 터뜨렸다.

LAFC는 18일 콜로라도주 커머스시티의 디क्स스포팅굿스 파크에서 열린 MLS 정규리그 3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콜로라도 래피즈와 2-2로 비겼다. 국가대표팀 평가전(A매치) 2연전(브라질전·파라과이전)을 뛰고 LAFC에 복귀한 손흥민은 이날 단짝 드니 부앙가(29)와 함께 투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손흥민의 선제골은 전반 42분 나왔다. 부앙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상대 수비 한 명을 제친 뒤 강한 원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8월 LAFC에 입단한 손흥민은 9골·3도움(10경기)으로 MLS 데뷔 시즌 정규리그를 마쳤다. 이날 손흥민 골은 LAFC가 창단 260경기 만에 달성한 정규리그 500호 골이었다.

승점 1을 보탠 LAFC(17승9무8패·승점 60)는 서부 콘퍼런스 3위로 정규리그를 마쳤다. 이제 LAFC는 ‘가을 축구’에 나선다. MLS는 정규리그를 34라운드까지 치른 뒤 동·서부 콘퍼런스에서 각각 8개 팀이 참가하는 일종의 포스트시즌인 MLS컵 플레이오프(PO)를 치른다. 동·서부 콘퍼런스 1~7위 팀은 PO에 직행하고, 8~9위는 와일드카드전을 거친다. LAFC는 PO 1라운드에서 서부 콘퍼런스 6위 오스틴 FC(승점 47)와 대결한다. PO 1라운드에서 콘퍼런스 1위는 와일드카드 승리팀과, 2위는 7위와, 3위는 6위와, 4위는 5위와 각각 3전2승제로 격돌한다. 콘퍼런스 준결승과 결승, 그리고 양대 콘퍼런스 우승팀이 격돌하는 MLS컵 결승은 모두 단판 승부다.

한편, 인터 마이애미 리오넬 메시(38)는 같은 날 내슈빌전(마이애미 5-2승)에서 헤트트릭(시즌 27~29호 골)을 몰아쳐 득점왕을 차지했다. 2023년 MLS에 입성한 지 세 시즌 만의 영예다. 메시는 도움(19개) 부문 공동 1위도 차지했다. 마이애미는 동부 콘퍼런스 3위로 PO에 진출했다.

피주영 기자



9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

[LAFC 캡처]

역전의 여왕이던 20대, 역전 당하지 않는 30대



BMW 레디스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한 박웃음을 짓는 김세영.

김세영 LPGA BMW챔피언십 제패 막판 폭발력 대신 안정 운영 돋보여

김세영(32)이 19일(한국시간) 전남 해남의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끝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최종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쳐 최종합계 24

언더파로, 2위 하타오카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렸다. 우승 상금은 34만 5000달러(약 4억9100만원)다.

김세영은 ‘역전의 여왕’으로 이름을 날렸다. 20살이던 2013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 클래식에서 유소연에 5타 뒤지다가 이글과 홀인원 등을 몰아치며 역전 우승했다. 2015년 롯데 챔피언십에서는 마지막 홀 두

번째 샷을 물에 빠뜨리고도 칩샷을 홀에 넣어 살아나더니, 연장전에서 샷이 글로 박인비를 제쳤다.

2018년 7월 LPGA 투어 손베리 클래식에서 김세영은 31언더파 257타를 기록해 LPGA 투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2020년까지 LPGA 투어에서 12승을 거뒀는데, 김세영이 마지막 날 빨간색 바지를

입고 나오면 선두권 선수들이 떨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우승과 거리가 있었다.

32살 김세영의 샷 거리는 예전만 못하다. 여전히 최종라운드에 빨간색 바지를 입고 나오지만 더는 폭풍처럼 몰아치던 ‘역전의 여왕’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막판 폭발력이 필요 없었다. 첫날(16일)에만 10언더파를 치고 선두로 나섰다. 안정적인 경기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해남=성호준 골프전문기자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P.C.)가 새로이 출범하여 이에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P.C.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전)
-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 (전)
-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 (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이민 신청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전)
- VA, NY 변호사 자격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P.C. (703) 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10월
구
인
광
고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급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음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 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오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s.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
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라셉서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PG 카운티 리퀴드스토어 라러리 스타카실분
2-9pm 일하실분 구함(금,토 포함)
301-336-2500

메릴랜드 라이선스 소지하신 마사지 세라피
스트 구합니다.
240-232-5989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구합니다. (전기, 목수, 타일, 배
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 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트타임)
410-961-3012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날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엘리콧시티 세탁소 바느질 유경력자 구함
풀 & 파트타임,
배강만 하실분도 구합니다.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2층 욕실 딸린 큰방,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3.5, 10월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
드 대학 가까운 싱글홈 이중방 렌트, 즉시 입
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중방 & 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사업체 매매

확실한 순이익 보장 델리 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 건물, 주 5일 (6am-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 모집 RN, LPN (풀타임, 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력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력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케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멘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챔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챔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라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 구합니다.
703-258-4356

애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트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력자 환영
703-338-3037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티알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스토어 RT 1 & 234
아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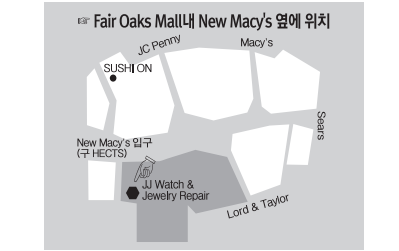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중앙일보

Customer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사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트임) 410-961-3012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GMU 대학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 트합니다. (웃슨 하이스쿨 학군) 방4, 화2.5, 차고2 703-350-2278 스프링 필드 싱글홈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가능 \$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 렌트 \$2,400, 방3, 화장실 3.5, 업그레이드된 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3,000 로빈슨 하이스쿨 근처 1,496sqft 전체 렌트 방3, 화3.5, 11/5일부터 입주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텍,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2, 텍,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편리한 로케이 션, 잘 관리된 집 2.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 이함, 굿 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풀린 파월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 다수 SouthCounty 하이, RT95/395/286/123 ▶571-239-605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콘도 \$1,500 방1, 화장실1, 고급스런 나무 마루, 탁트인 넓은 콘도, 업데이트된 부엌, 계단없는 1층 나무가 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콘도 \$2,600 방2, 화장실1, 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 탁트인 조망, 엘리베이터, \$100,000 가량 수리하고 업데이트한 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텔한 화장실, 새 페인 트,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 콘도 \$1,700 방1, 화장실1, 엔드 유닛 880 sf, 넓고 밝은 콘도, 세탁기, 건조기, 새 화장실, 나무 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 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571-239-6054 1. 욕튼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 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 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로튼 (스프링필드) 조용한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 포함, 출입분 별도, 2500 sqft 703-478-452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완비, 인터넷, 화생 또는 직 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 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편리, 주차넉 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 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합니다.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 방 렌 트,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장으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텍,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분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웨스트 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합니다.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 모집니다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 옆 240-644-4190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라곳시타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흥 인프라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구합니다. (전기, 목수, 타일, 배 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부동산 매매 채틸리 급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703-231-5572 센터빌 벅돌 타운 하우스 \$589,000 방3, 화2.5, 차고 1 H MART 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우드 브릿지 타운홈 \$410,000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 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703-813-8949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럭셔리 리 싱글 \$1,699,000 1 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3차 고, 야외 리조트 스타일,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 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 우드 바닥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 못, 분소, 텍, 음향시스템등)골프장, 클럽하 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방4, 화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4, 화3 ▶301-318-4242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410-417-7080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3.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방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5. 웰컷시티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스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
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역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앤드 유닛,
업데이트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
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스 학군 싱글홈
\$1,900,000
2. 패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3, 화장실3, 차고2
3. 찬탈리새 빌더홈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패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
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5. 찬틀리 콘도 새 빌더홈 (2025년 완공 예정)
\$530,000 방2, 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
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
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확실한순익 보장 델리 매매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직원, 공실 위험 없
는 건물, 주 5일 (6am - 3pm)
703-300-7207(문자)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
링비 절감 효과.
관심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 헨돈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룸 + 1 욕실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중고 매매 / 기타

비속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날싱홀,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
니다.
703-966-9072 (Mr.Kim)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 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
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 \$350 (교재비 \$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너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된 인어공주, 자수정 수
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에 상태 좋음, 필요하
신 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
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분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
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웅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1평, 2평, 3평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러
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가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
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
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블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웍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앨런)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월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양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대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톱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씽크오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here's no doubt in my mind; 확신하다

(Lori is talking to her boss Jake...)

(로리가 직장 상사인 제이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Jake: Lori I'm beginning a new project and I'd like you to help me.

제이크: 로리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로리씨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Lori: I'm flattered. Thank you very much.

로리: 그럼 전 영광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Jake: Well I've noticed that your work is almost always at a high level.

제이크: 있잖아 로리씨의 업무 능력은 거의 항상

최고 수준이야.

Lori: Thanks. And we usually see eye to eye on how things need to be done.

로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에 관해서 저와 부장님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Jake: That's why there's no doubt in my mind that you're the one for the job.

제이크: 그래서 나도 이 일에 로리씨가 적임자라고 확신하는 거야.

Lori: I'm very excited. When do we start?

로리: 너무 기대되요. 일은 언제 시작하죠?

Jake: There's no time like the present.

제이크: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좋지.

Lori: I'm ready. What do we do first?

로리: 전 준비됐어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Jake: First I'll get you up to speed on what has to be done. 제이크: 우선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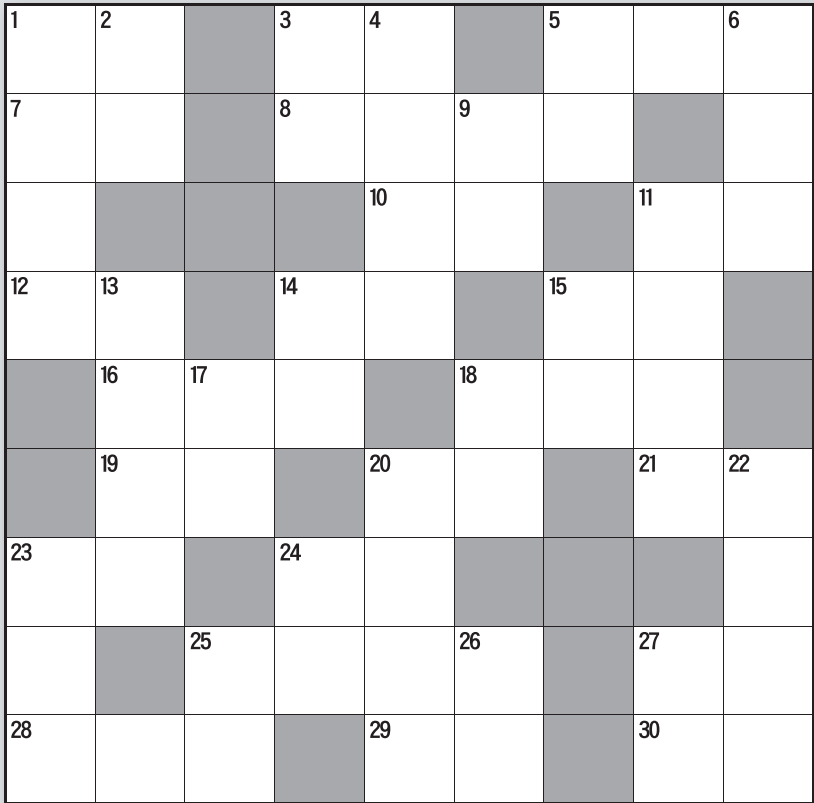
기억할만한 표현

▶ see eye to eye: 의견이 잘 맞다.

"I can't work with her because we don't see eye to eye about anything."
(생각이 통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녀와는 같이 일 못하겠어.)

▶ There's no time like the present: 지금 하는 게 최고야.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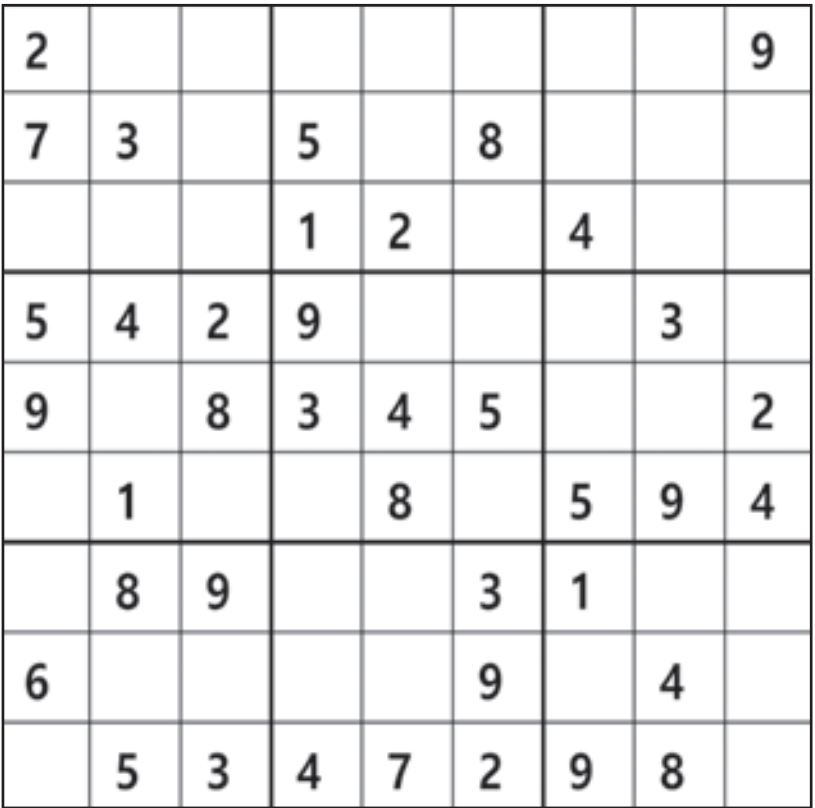
가로열쇠

(1)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돌아온 4월은 ~의 등불을 밝혀 든다/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박목월) (3) 책, 신문, 잡지 따위의 글을 읽는 사람 (5) 어린아이가 걸음을 익힐 때 발을 떼어 놓는 걸음걸이 (7) 솥탕을 모아서 솥을 만들고 찌는 기름을 쫓다. 목화 (8) 거울에 비친 미인. 실속 없는 일 (10) 아는 사람. ~의 소개로 취직을 하였다 (11) 신변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 (12) 땅이 흔들리는 현상 (14) 집 뒤 울타리의 안. 어린 시절에 고향 집 ~에 있던 장독을 깬 일이 기억난다 (15) 말린 명태 (16)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잔을 바꾸어 마시는 술 (18) 바람을 막기 위하여 문짝 주변을 돌아가며 바른 종이 (19) 임금의 자리를 이을 임금의 아들. 마의 ~ (20) 스스로 깊이 배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21) 다리를 받치는 기둥 (23) 산에 오름 (24) 꽃이 피는 풀과 나무 (25) 상갓집의 개.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 (27) 괴로움과 어려움 (28) 먼저 와 닿는 차례 (29) 부스럼 (30)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 사항

세로열쇠

(1)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2) 아주 잘 그린 그림. 유명한 그림 (3) 불경을 소리 내어 읽거나 읽 (4) 같은 편거리 하는 싸움 (5)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6) 인관관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그는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9) 아름다운 사람 (11)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 (13) 작은 물건도 많이 모이면 큰 것이 됨. 티끌 모아 태산 (14) 나무로 만든 곡식을 담는 켜 (15)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17) 아프거나 다친 사람 (18) 잘못을 깨닫고 꾸짖음. 상사에게 ~을 당하다 (20)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22)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골□□ (23) 지도에서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 평면도에 땅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4) 그림 그리는 예술가 (25)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동안. 초순 (26)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 야구, 축구, 배구, 탁구 따위 (27) 고래(古來)로 드문 나이. 일흔 살을 이르는 말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30주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티뱅크카드와
월드페이
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대표: 사라 류 박사
https://wikita.com/wiki/Dr._Sarah_Ryu_Liew
30년 프로그래밍 경력,
경영학 박사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퍼시픽(J.S.D.) 법대원 수학
부사장: 아브라함 이
(경영학 학사, 석사)

▶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card 전화주세요!

www.worldpay.com
Info@meridianwish.com

424-332-3779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센터,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애틀랜타

구인

IT Programmer:

Record and document computer program development and subsequent revisions. Must have a Bachelor's deg. in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or related field. Mail resume to Kumho Tire Georgia Inc. at 3051 Kumho Pkwy, Macon, GA 31216. Attn: Mr. Kim

Electrical Engineer:

Analyze data and provide electrical budget estimates for projects. Must have a Bachelor's deg. in Electr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or related field. Mail resume to Kumho Tire Georgia Inc. at 3051 Kumho Pkwy, Macon, GA 31216. Attn: Mr. Kim

9월 햇살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빠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레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텔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식당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ADT 시큐리티 알람서비스

"강도, 도둑도 방지, 예방이 최고입니다."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가 최고입니다.

남가주 최대
공인딜러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무료 초인종 카메라
전화기로
연결 가능

Since 1874
ADT
877.373.0265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Old Lee Hwy. Picknett Rd.
TJ Maxx Main St. Center Main St.
Fairfax Motors 한국자동차 Woodson H.S.
Burke Station Rd.